[UCI]I804:24011-200000231733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정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f Old People Dwelling in Welfare Facility in Leisure Activ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2006년 8월 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성 현 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549681 2006-09-07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정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철 주

이 논문을 이학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성 현 출

성현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인

위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조 동 진 인

위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정 명 수 인

위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송 채 훈 인

위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김 철 주 인

2006년 6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제 목 차 례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제한점 ····· 5
4. 연구문제 ····· 5
5. 용어의 정의 ····· 5
   1) 복지시설 ····· 5
   2) 노인 ····· 6
   3) 여가활동 ····· 6
   4) 생활만족 ····· 6

Ⅱ. 이론적 배경 ····· **7**

1. 노인의 개념 ····· 7
2. 고령화 사회 ····· 10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 10
   2) 고령화 사회의 전개 양상 ····· 13
   3) 주요 선진국의 노령화 추이 ····· 18
3. 노인의 여가와 여가활동 ····· 20
   1) 여가의 개념 및 의의 ····· 20
   2) 여가활동의 유형 ····· 26
   3) 노인 여가와 생활만족 ····· 28
4. 노인과 생활만족 ····· 31
   1) 삶의 질의 개념 ····· 31
   2) 노년기 삶의 질 구성요소 ····· 33
   3) 생활만족의 개념 ····· 35

5. 노인복지시설 ····· 38
1) 노인복지의 개념 ····· 38
2)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전략 ····· 40

Ⅲ.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활동만족정도와 생활만족간의 관계 모형 ····· 43
1. 관계모형의 설정 ····· 43
2. 관련변인의 정의 ····· 44
1) 여가활동 참여 ····· 45
2) 여가만족 ····· 45
3) 여가몰입 경험 ····· 45
4) 생활만족 ····· 46
3. 구조모형 ····· 46
4. 연구가설 ····· 47

Ⅳ. 연구방법 ····· **48**
1. 조사대상 ····· 48
2. 조사도구 ····· 50
1) 설문지의 구성 ····· 50
2) 조사도구의 내용 ····· 51
3) 설문지의 타당도 ····· 53
4) 설문지의 신뢰도 ····· 57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 58
1) 조사절차 ····· 58
2) 자료처리 ····· 58

Ⅴ. 연구결과 ····· **60**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정도 차이 분석 ····· 60

2.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비교 ····· 65
1)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차이 ····· 65
2)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경로분석 ····· 65
3)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차이 ····· 67
4) 여가활동 참여정도, 여가만족정도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 68
3.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9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 69
2) 구조방정식 추정 ····· 70

Ⅵ. 논의 ····· 75
1. 노인의 인구통계학적특성과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관계 ····· 75
2.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과의 관계 ····· 77
3.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 ····· 78

Ⅶ. 결론 및 제언 ····· 81
1. 결론 ····· 81
2. 제언 ····· 82

참고문헌 ····· 84

표 차 례

표 1. 주요 국가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 ····· 15
표 2. 노인 인구비율과 노령화 지수 ····· 16
표 3. 한국의 총인구와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 ····· 17
표 4.한국인 평균수명의 연도별 추세 ····· 18
표 5. 인구고령화의 국제적 비교표 ····· 18
표 6. 주요 선진국들의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도달 년도 비교 ····· 19
표 7. 현재 외국의 노인 인구비와 노령화 지수 ····· 20
표 8. 여가활동 참여의 분류 ····· 27
표 9. 여가활동 형태의 분류 ····· 28
표 10. 표현적 관여정도에 따른 여가활동의 분류 ····· 29
표 11.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 41
표 1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8
표 13. 설문지의 구성 지표 및 내용 ····· 50
표 14. 여가만족정도에 대한 탐색적요인 분석결과 ····· 54
표 15. 생활만족도 요인에 대한 탐색요인 분석결과 ····· 55
표 16. 전반적 부합지수 ····· 56
표 17. 설문지의 신뢰도 ····· 57
표 18.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몰입의 차이분석 ····· 61
표 19.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의 차이분석 ····· 62
표 20.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의 차이분석 ····· 64
표 21.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만족 비교 ····· 65
표 22.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생활만족 경로계수 ····· 66
표 23. 여가활동 참가자 · 비참가자의 구조모형 부합지수 ····· 66
표 24.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생활만족 차이 비교 ····· 68

표 25. 측정항목간의 상관계수 ····· 69
표 26. 구조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 ····· 69
표 27.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간의 경로계수의 추정 ····· 70
표 28. 노인들의 인과효과의 분석 ····· 73

그림차례

그림 1.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 구조 모형 ····· 44
그림 2.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경로그림 ····· 46
그림 3.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생활만족에 대한 경로분석 ····· 67
그림 4. 여가활동 요인과 여가만족정도간의 경로모형 ····· 71
그림 5.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간의 경로모형 ····· 72
그림 6.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정도, 생활만족간의 경로그림 ····· 74

ABSTRACT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f Old People Dwelling in Welfare Facility in Leisure Activ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Song Hyon-Chul
Advisor : Prof. Kim Chul-Ju,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evelopment of modern scientific civilization brought about that of medical technology and has accelerated the extension of man's life span and aging of population. Kim Seol-hyang(2005) asserted that Korea entered the aging society having more than 7% of aging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in 2000.

Therefore, each country concentrates on leisure for improving national welfare, recognizes the security of qualitative leisure life as national right to enjoy pleasure, ensures supply system of various leisure styles and distributes welfare facilities for middle- and low-income class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elder'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enhances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improves their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their life in old age and is a medium to suggest solutions of aging problems in social changes and enhance the whole life satisfaction of our society, tra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will be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participation of the elder who are residing at welfare facilities in leisure activ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us, it set the old people who are over 65 years old and reside at welfare facilitie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s as population and sampling of research subjects used systematic cluster sampling.

Sampling was conducted with the elder's residence welfare facilities and

leisure welfare facilitie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s and for final statistical processing, total 449 responses (89.8%) except 51 omitting part of survey contents or giving unfaithful answers were used for actual analysis.

Survey methods for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But, questionnaire staffs were selected by considering lack of their understanding of questionnaire contents and of their technical knowledg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d people and they read items of questionnaire to old people directly for helping their understanding of items and self-administration method or their registration on questionnaire in place of subjects were used.

Questionnaire used Leisure Satisfaction Scale developed by Raghed and Beard (1980) and used by Lee Jong-gil (1992), Lee Jong-yeong (1992) and Han Hye-won (2000) and extracted and requoted life satisfaction of questionnaires used at the Way of Policy Development of Sports for All for the Enhancement of Life Quality in the 21st century by Yoo Hee-yeong (2001).

Items of questionnaire of this study consist of total 54 inquiries including 7 items and 7 inquiries of demographical character variables, 3 items and 8 inquirie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which is independent variable, 2 items and 19 inquiries of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which is medium variable and 1 item and 20 inquiries of life satisfaction which is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as a result of calculating coefficients with Cronbach α on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α values of items on leisure satisfaction degree and life satisfaction factors were .893 and .847 respectively and relatively stable reliability was measured.

For data analysis, data having po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analysis except data showing unfaithful answers and no reliability were analyzed with statistical program SPSS 10.1 and AMOS 5.0. an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ccording to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old people residing at welfare facilities showed that the old

people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ifference in sports and health activities at the state controlling preceding variables such as sex, age, religion, monthly pocket money, education and health condition.

Second, participation of old people residing at welfare facilities in leisure activities resulted in higher life satisfaction of old people who were satisfied with leisure satisfaction and immersion. And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of old people in leisure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rd, causal model of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of old people residing at welfare facilities in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causation in all factors of causal effect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o sum up the above conclusions, old people residing at welfare facilities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settle their inability and alienation and satisfy with their life. Accordingly, they can meet their individual environmental and social desires, overcome mental maladjustment effectively and make a new chance to adapt themselves to a new leisure by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여가는 자기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일종의 생활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가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정당하고 질적인 여가생활이 보장되도록 국민에게 즐거움을 누릴 권리로 인정하고, 다양한 여가의 공급체계를 확보하여 중간 및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가 개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나 국민복지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경쟁력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기인한다(강홍구, 2000). 다시 말하면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자아에 대한 관심고조 등 제반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오늘날은 전 세대와는 달리 증가된 여가시간의 선용 및 여가 능력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홍성희, 2000).

한편 의료 및 보건위생기술의 발달, 생활여건의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것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양상태의 호전, 출산율 및 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평균수명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두드러진 고령화 현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의 증가는 오히려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김형오, 2002).

한국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다른 외국과 비교해도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영국이 45년인데 비해 일본은 26년이 소요되었고, 한국은 그 보다 짧은 20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 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김환희, 2002).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들의 문제를 적극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풍요로운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인간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신문화 계승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수춘, 1995).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라는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경로효친 사상과 관습이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 국가와는 달리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진적으로 진전된 산업화와 도시화,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 등 주요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심각하게 부각된 것이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타난 노인문제이다.

1960년도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전체인구의 4% 수준인 72만 6천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2년에는 55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171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12%에서 33%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02). 노령화 지수 또한 1980년 11.2%에서 2000년 32.9%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6.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1980년 이후 유년부양비는 매년 감소추세인데 비해,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에서 2000년 10%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8.9%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부양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통계청, 2002).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하나로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 및 자녀와 동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사회적 체면 등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기능 쇠퇴를 대체할 수 있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

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나 심신 등의 장애로 인하여 가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나 교육·여가생활 제공 등 노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곳으로써 이들에게 보호기능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신체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기

능에 따라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또한 거주 노인의 비용 부담 정도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 실비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용방법에 따라 입소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기도 한다(김형오, 2002).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주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관련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이 강조된다.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학적인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노인을 위한 상대적이며 실용적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게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될 변화는 노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라 할 수 있다. Searle, Mahon, Iso-Ahola, Adam Sdrolias와 Dyck(1995)은 노후에도 쇠퇴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심리적 건강을 지닌 노인은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는 자신의 생활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Rodin, Timko와 Harris, 1985). 그러나 노인은 생리적 변화 및 자신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건강유지에 대한 심리적 건강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연령층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Murphy(1981); Larson(1978); Tinsley, & Tinsley(1986)등은 노인의 심리학적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권태감, 고독감, 우울증이라고 하여 노년기 권태감, 고독감, 우울증 등은 건강조절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unn과 Wilhite, 1997). Nunn과 Wilhite,(1997); Searle,(1995)등은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고독감, 권태감, 그리고 우울증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연구결과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노화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연구자들의 관심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일차원적인 영역에만 접근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생리학적인 부분과 기능손상에 대한 회복 및 치료에 관한 연구(Evans, 1988; Forbes & Hirdes, 1993; Graney, 1975; Heikkinen, 1995; Palmore, 1968; Wallace & Woolson, 1992)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의 스포츠 및 사회체육참가가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

하게 시도되고 있으나(민혜숙, 1999; 설민신, 2000; 양경희, 2000; 최성애, 1998;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Ward, 1984; Won, 1989),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경험적 결과를 기초로 한 변인간의 관계설정에 의존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스포츠와 생활만족의 관계 사이에 내재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어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만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이 갖는 여가는 현실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삶의 한 양식이기에 정부, 지역사회, 복지시설, 일반가정에서도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여가활동 참가와 만족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를 통해 사회노년학에서 강조되고 발전되어온 여러 이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접근은 노인이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여가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고독감, 우울증, 권태감의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규명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복지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여가활용 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 특정 역할이나 활동을 상실한 노인에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 및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대체역할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경식(1996); 윤이중(1996); 이성철(1996); 이종길(1992) 등은 1970년대 이후 여가 및 스포츠의 사회학 연구 영역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을 통하여 여가활동참여가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가 성공적 노

화를 위한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제한점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 표집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광주·전남지역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측정변인의 사회조사 특성상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려져 있는 배경변인(주관적 건강, 배우자 유무, 가계소득, 직업지위, 교육수준, 용돈, 가족유형 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변인에 의한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은 분석 가능한 선행변인의 범주 내에서만 해석이 가능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인구통계학적특성과 여가활동 참여 유형의 관계

둘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

셋째,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

5. 용어의 정의

1) 복지시설

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자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수용·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말한다(박석돈, 1994).

2) 노인

노인이란 UN에서는 65세 이상 자를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역할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서병숙, 1993).

3) 여가활동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Beard & Raghed, 1980).

여가몰입은 여가를 비롯한 일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개인이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Csikszentmihaly, 1975).

4) 생활만족

개인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지적 판단 및 평가이며, 행복에 대한 개인생활의 포부와 목적의 조화적 만족을 의미한다(Chekola, 1975).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

흔히 나이 든 사람을 일컬어 노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부터를 노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노인"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환경적인 배경과 전통의 특수성이나 개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몇 세부터 노인이라는 획일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늙은 사람을 뜻하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연령이 많을 뿐이라는 의미로 "노령자"나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도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노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들 사이에서도 건강의 정도, 경제적 지위, 사회활동, 자신에 대한 평가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노인을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이동수, 권판근,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젊은이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노인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전반에 걸쳐 변화를 경험한다. 노인이란 생물학적, 심리학적, 생리학적으로 갖가지 개체의 차를 갖지만 대개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쇠퇴가 현저한 사람을 말하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지위나 역할이 상실되는 시기에 있다. 그러나 Han(1988)은 "만일 노화(Senescence)를 죽음으로 향한 발달이라고 한다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생성시킨 순간부터 시작 된다"고 하여 모든 인간은 매일 노화의 과정을 밟고 있어 특정 연령 이후에 노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인(the old aged)이란 출생 이후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성장기·청년기·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말한다. 노년기는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개인차가 서로 있으며 젊은 세대에 비하여 육체적·정신적기능이 쇠퇴하는 시기이나 나이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느

냐 하는 것은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보통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지만(한국사회복지협회, 1995)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령기준에 의한 노인의 개념규정은 매우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 학자들은 노인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첫째, 늙음 자체 둘째, 연대적인 연령과 사회적 역할 셋째, 늙음에 대한 자각의 관점 등을 준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최남순, 1999).

먼저 늙음 자체를 근거로 하여 노년기를 규정하는 입장이 있다. 1951년 7월 미국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노인은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결함이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인체의 기관, 조직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활 자체에서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는 사람 다섯째, 인체조직 및 기능의 소모로 적응 감퇴 상태에 있는 사람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Bruno(1980)의 견해에 따르면, 노인이란 생리적·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개성의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연대적인 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령을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뉴가르텐(Neugarten, 1980)은 미국 노인집단을 대부분 일을 할 수 있으며 돈 버는 능력과 사회적 승인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55-65세의 연소 노인(young-old) 퇴직자들이 많이 포함된 65-75세의 중노인(middle-old) 75세 이상으로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병약하며 고립되고 궁핍한 계층이 많은 고령노인(old-old) 등 세 집단으로 나누고 있으며, 애칠리(atchley, 1980)도 60-74세의 연소 노인, 75-84세의 중노인,85세 이상의 고령노인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사회적 역할수행능력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오오미찌안로(1970)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연령은 정년제를 기준으로 한다. 즉 근대사회에서 노인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와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혹은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연령, 그리고 가정에서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자식세대에 넘겨준 상태에 잇는 경우에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노인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인에 대한 개념은 관찰하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개념 규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잇는 것은 역시 연령적 기준에 의한 것이다. 연령적 기준에 의한 정의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용이한 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특수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잇다. 특히 연령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회학적 현상과 문제가 다르게 측정되고 이해된다.

대표적인 연령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인구학적 고찰에서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65세 이상 되는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인구에 대한 거시적 분석의 하나로 0세~14세를 연소인구, 15세~64세를 생산연령 인구, 65세 이상을 노년인구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연령 구분은 한 인구 집단의 경제 활동력 및 부양능력 등의 분석에 이용되어 사회분석의 기초가 되며, 그 기초에 근거한 사회 정책이 형성된다(노인복지편람, 1985).

이러한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개념은 노인과 관련된 다른 법과 제도에서도 우세하게 적용되어 왔다. 법적으로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그 연령이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개념은 노인과 관련된 다른 법과 제도에서도 우세하게 적용되어 왔다. 법적으로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그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생활보호법과 경로우대제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의 개념 규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과 노화의 다양한 전개양상과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적인 개념규정이 발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노인이라는 아주 큰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인식이 부족하여 60대의 노인이나 70대의 노인, 80대의 노인 등 그 특성과 변화의 범위는 매우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인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의 집단으로 노인을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법의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연령적 기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며 또한, 55세 이상을 고령자의 한 집단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용 대상자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구상과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뉴가르텐

(Neugarten)과 애칠리(Atchley)의 견해처럼 연대적인 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령을 파악하되, 그 특성을 잘 포괄할 수 있도록 하위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65세라는 기준만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게 나타나 연령기준에 의한 노인의 구분이 혼돈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령의 시작이라고 보는 회갑이 61세이며, 경제적 생산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생활에서 물러나게 되는 정년퇴직 연한의 경우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의 수급연령도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법 시행의 대상도 다양하게 규정된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인의 개념은 매우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으로 일관적으로 수용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화가 가져오는 인류 사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와 노인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고령화 사회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란 무엇을 뜻하는가? 현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의 변동적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어사용의 기간이 오래된 것은 아니나 많은 선진제국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하나의 국가나 사회의 인구구조변동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Conle, 1957).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에 대비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로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뜻하는 것과 둘째, 노년인구계수의 구체적인 수치와는 관계없이 국가적 사회적 노년인구계수의 증가 현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고령적 상태로 변화된 사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뜻한다.

여기서 인구구조란 전체인구의 연령별 구성비율의 분포상태를 뜻하며, 다음과 같은 3개의 구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집단은 비생산적 연소인구로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를 뜻한다. 둘째는 생산연령인구집단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노동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뜻하며, 끝으로 비생산적 노령인구집단은 65세 이상의 인구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부족한 인구를 뜻한다. 이상과 같은 인구구조를 산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대부분 표시한다.

가. 인구계수비율의 산출방법

① 비생산적 연소인구계수 = 연소인구수/전체인구수 × 100
② 생산연령인구계수 = 생산연령인구수/전체인구수 × 100
③ 비생산적 노령인구계수 = 노령인구수/전체인구수 × 100

※ 1. 연소인구수 : 0세~14세 까지 유·소년 인구를 말하며
2. 생산연령인구수 : 15~64세 까지 생산노동력이 있는 경제적인 인구를 뜻하고
3. 노령인구수 :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말한다.

나. 인구지수[1]의 산출방법

1) 인구지수란 생산연령인구(15세~64세)에 대한 연소인구(0세~1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의 각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5세~64세의 연령층을 생산적 연령인구라고 부르는데 그 대상을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을 끝마친 경제적 생산 활동과의 연결이 가능한 연령계층이 포함된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활동에서 퇴직하기 전의 연령계층까지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산연령인구의 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연소인구와 노년인구는 생산연령인구의 경제적 생산성에서 나타나는 부력이나 재력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의존적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종속인구라고 한다.

① 비생산적 연소인구지수 = 연소인구수/생산연령인구수 × 100
② 노년인구지수 = 노년인구수/생산연령인구수 × 100
③ 종속인구지수 = (연소인구수 + 노년인구수)/생산연령인구수 × 100
④ 노년화지수 = 노년인구수/연소인구수 × 100

이상과 같은 공식에 따라 인구계수비율과 인구지수를 산출하였을 때, UN에서는 한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4%미만인 나라를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나라를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그리고 7% 이상인 나라를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노년인구의 급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960년대 이후부터 노년인구 구성비율의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미국에서는 한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미만인 나라는 유년국(young populations), 4-6%인 나라를 청년국(youthful populations), 7-9%인 나라를 열년국(mature aging populations) 그리고 10%이상인 나라를 노년국(aged populations)으로 구분하고 있다(Rauels, 1969).

이러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대한 용어는 최근의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7% 이상의 노년인구계수가 두 배 이상인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를 뜻하는 것과 둘째, 노년인구계수의 구체적인 수치와는 관계없이 국가적 사회적 노년인구계수의 증가현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고령적 상태로 변화된 사회가 그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와 연결되어 계속 고령화 사회로 확대될 수 있다.

고령화 현상은 의약의 발달이라든지, 보건위생시설의 향상이라든지, 질적 영양 상태의 호전이나 출산율 및 사망률의 감소 등에 의한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에 기인한다. 고령화 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Bromwick, 1983). 모든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육체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허약성이 나타나 생산적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 동작 자체가 자유스럽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장기의 위축, 신체구조의 비대화 등 노인특유의 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정신적으로는 건망증이 빈발하게 나타나기 쉽고 심리적으로는 자아중심성의 고집, 회의적 사고방식, 고독감, 무질서한 언쟁 및 보수적 판단 등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화현상이 고령화 사회를 이루게 한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인간적 운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구구성에 있어서 젊은 청년층수와 비교하여 노인인구수가 증대하는 내용을 비율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노인인구수가 높아지는 경우를 인구의 노화현상 즉,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는 점이다. 고령화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적게 출산하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즉, 소산소사라는 사회현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출생하는 자녀의 수가 감소되었고 반면 보건 위생 상태나 의학의 발달에 따라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들이 감소되어 노인의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고령화 사회란 젊은 생산적인 노동인구수 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현상, 즉 생상연령인구수의 감소를 뜻한다. 고령화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생산인구수 중에서도 젊은 계층의 인구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미래사회의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위험한 요소가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구상하고 실천단계를 형성해야 하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산인구수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래 사회의 유지와 인간 역사의 발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은 계층의 풍족한 노동력과 생산성의 결과에 따라 노인계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고령화 사회의 전개양상

(1) 인구 구조의 변화

20세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인구 고령화 추세는 완만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세계인구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인 1650년에는 약 5억에 불과하였으나 1850년경에는 그 2배가 늘어난 약 10억이 되었으며, 1930년에는 다시 2배가 늘어난 약 20억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에는 다시 그 2배가 늘어난 40억 명으로 증가되었고 1987년에는 50억을 돌파했으며, 2000년 현재는 세계인구가 60억을 돌파하였

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최근에 세계 인구는 유래 없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고령 인구층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산업화된 선진 국가에서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구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제3세계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에서는 UN이 결의한 바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75세미만을 노령자 전기로 75세 이상을 노령자 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4>은 65세를 기준으로 한 주요국의 연도별 고령자 인구비율에 관한 추세를 나타내는 내용인데(이혜원, 1998), UN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비율의 7%를 초과하고 있는 국가를 인구고령화 국가로 명명하고 있다(Ward, 1997).

한편, 주요국가에서 노령인구비율이 7%를 초과한 시점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865년에 이미 노령화 국가가 되었으며, 스웨덴은 1890년, 영국은 1930년, 미국은 1945년, 일본은 1970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2020년에 이르면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비율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초기부터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전개되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국가들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앞으로 2025년에 이르면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3%나 차지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독일 22.5%, 스웨덴 22.2%, 프랑스 19.3%, 영국 18.7%, 미국 17.2% 그리고 우리나라는 1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 (단위 : %)

국가별 / 년도별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1950	8.1	9.4	11.4	10.7	10.3	4.9	3.3
1960	9.2	10.9	11.6	11.7	12.0	5.7	3.3
1970	9.8	13.2	12.6	12.9	13.7	7.1	3.3
1980	11.3	15.0	13.7	14.8	16.2	9.1	3.8
1985	11.5	14.0	13.3	14.7	17.0	10.2	4.3
1995	12.6	15.2	13.4	14.8	17.3	14.1	5.3
2000	12.5	16.4	14.8	14.9	17.4	17.2	7.1
2010	14.2	20.2	14.9	15.3	18.8	19.	8.7
2025	17.2	22.5	19.3	18.7	22.2	23.3	11.4

※자료 : 이혜원, 「노인복지론」, 1998, 유풍출판사, p.50

물론, 일부의 저개발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아직까지 실제적인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UN에서는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에서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로 인구통계학적 전환으로 볼 때 급속한 인구의 규모 및 밀도의 증가가 초래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장래에 나타날 것을 아래와 같이 미리 예상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DP 한국대표부, 1988).

첫째,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80세 이상의 노년계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증대될 것이므로 인구현상은 2025년 안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속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사회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차지할 것이므로 자연히 노령인구의 중심을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인구의 성 비례를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게 될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수

없다.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면 자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체계의 중요한 측면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서 노인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하다.

(2) 한국사회의 고령화 특성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37만1천명으로 총인구 4천 727만5천명의 7.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현상은 80년대 이후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그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2000년에 발표된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될 수 있는 특정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생산인구수가 급감하는 동시에 전체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율이 24.7%까지 급속도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전망(한겨레신문, 2000)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노령화 지수[2]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증가하여 싱가폴 보다 높은 실정이다.

표 2. 노인인구비율과 노령화지수 (2000년 현재)

구 분 \ 국가별	한국	싱가폴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1	7.2	17.2	12.5	16.4	17.4
노령화 지수(%)	32.9	32.4	117.6	58.1	105.8	95.6

※자료1)UN(1998)."World Population Prospects,
2)통계청,"장래인구 추계",1996.12
3)보건복지부,<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2001,p3

한편, 우리나라는 일제 강제징용과 6.25전쟁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가 지나치게 뒤떨어져 있었다. 1955-1974년까지의 약 20년 동안에 노인

2) 노령화 지수란 인구 구성의 노령화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0세~14까지의 유·연소인구수를 65세 이상의 비생산적인 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숫자이며 이는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65세 이상 인구÷14세 미만 인구】×100

인구가 전 인구대비 3.3%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이후 1975년에 3.5%, 1980년에 3.8%, 1998년에 4.5%로 점차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였으나 그 진행과정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노령화 속도였다.

그러나 한국은 70년대의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 도시화 운동을 급진적으로 전개하면서부터 노령인구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70년까지 3.1%에 불과하였던 노령인구는 1980년에 3.8%, 1990년도에는 5.1%로 새천년인 2000년 이후에는 7.1%로 나타나 UN에서 인정하는 고령화 국가(aging station)로 급성장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한국의 총인구와 노인인구의 증가추세 (단위:천명)

구 분 \ 연도별		60	70	80	90	99	2000	2020
총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6,858	47,275	52,358
65세 이상	전체노인수	726	991	1,456	2,1950	3,024	3,371	6,899
	구성비율	2.9	3.1	3.8	5.1	6.8	7.1	13.2

※자료: 장래인구 추계(통계청,1996.12)

결국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표 2>에서 보듯이 1999년 말 현재 3백20만4천명으로서 전체인구수의 6.8%를 차지하게 되었고 2000년에는 337만1천명으로 7.1%가 초과되었으며, 2010년에는 503만2천명으로 10.0% 그리고 2020년에는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3.2%인 689만9천명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수의 증가추세로 보아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7백52만 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4.3%에 달하게 되어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평균 수명 연령의 증가에서도 확실히 나타나며, <표 4>과 같이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음을 알 우 있다. 즉 1960년대에 평균수명이 52.4세(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서 1995년에는 평균수명이 73.5세(남자 69.6세, 여자 77.4세)로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4.9세(남자 71.0세, 여자 78.6세)로 나타나 향후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평균 수명이 78.1세(남자 74.5세, 여자 81.7세)로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한국인 평균수명의 연도별 추세 (단위:세)

구분 \ 연도별	60	70	80	90	95	2000	2020
평 균	52.4	63.2	65.8	71.6	73.5	74.9	78.1
남	51.1	59.8	62.7	67.7	69.6	71.0	74.5
여	53.7	66.7	69.1	75.7	77.4	78.6	81.7

※자료: 장래인구 추계(통계청,1996.12)

3) 주요 선진국의 노령화 추이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8%에서 18%로 증가된 기간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표 5>와 같은데, 프랑스는 177년이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사회복지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도 103년이란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일본은 40년의 기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최근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성장이 급진적으로 활발한 국가에는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는 전개과정의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인구고령화의 국제적 비교표

국 명	60세이상 인구수에 도달한 연도		소요연도
	8%	18%	
프랑스	1788년	1965년	177년
스웨덴	1860년	1963년	103년
영 국	1910년	1969년	56년
독 일	1911년	1965년	54년
일 본	1955년	1995년	40년

※자료 : 민재성 외,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1994,p.64.
주 : 소요연도는 60세 이상의 인구비율 8%가 18%로 상승하기까지의 기간

한편,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가 7% 이상)에서 고령사회(노인 인구가 14% 이상)로 진입하는데 22년의 시간이 소요 될 것이며,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노인 인구가 20% 이상)로 진입하는데 불과 10년이 경과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각각 26년과 12년, 프랑스가 114년과 41년, 미국이 69년과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볼 때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화 사회로 넘어 가는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계신문, 2000).

표 6. 주요선진국들의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도달 년도 비교

국가별 / 구분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도달 년도						
	프랑스	스웨덴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한 국
고령화사회 (7%)	1865	1890	1945	1930	1930	1970	2000
고령사회 (14%)	1979	1977	2014	1976	1972	1994	2022
소요년수	114	87	69	46	42	24	22

※자료 1) 일본인구문제연구소, 인구의동향,1997
2) 보건복지부(1999)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들의 노인인구와 노령화 지수에서도 나타나는데 <표 6>에서 보면 세계에서 최고의 장수 노인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의 전체인구수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7.4%로 노령화 지수가 95.6%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전체인구수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7.2%로 스웨덴 보다는 약간 적으나 <표 7>에서 보듯이 노령화 지수가 117.6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빨리 일본이 초 고령사회(extra 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표 7. 현재 외국의 노인 인구비와 노령화 지수 (2000년 현재)

구 분 \ 국가별	일 본	독 일	스웨덴	한 국	싱가포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7.2	16.4	17.4	7.1	7.2
노령화 지수	117.6	105.8	95.6	32.9	32.4

※자료 : 1) UN 1998"World Population Prospects","장래인구추계"통계청1996.12
2) 보건복지부,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

3. 노인의 여가와 여가활동

1) 여가의 개념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여가라는 어원의 본질적 의미를 알아보고, 여가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정의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노인에게 부여된 여가의 의미와 여가활동 참여로 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1) 여가의 개념

여가의 어원은 여러 문명권에서 찾아볼 수 있지다. 특히 고대 그리스 및 로마시대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의 어원적 의미를 여가(leisure)와 비여가(unleisure)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여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스콜레(scole)는 '정지, 중지, 평화 및 평온'을 의미하는데 비하여(Grazia, 1962), 로마어의 오티움(otium)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doing nothing)을 의미하며(松原治郎, 1977), 어원상 전자는 자기는 소극적인 무위활동의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이들 어원은 모두 정지상태와 평화상태를 내포하면서 시간적 의미가 부여되어 남은 시간(spare time)에서 자 볼 때, 스콜레는 창조적 노동과 문화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데 비하여, 오티움 은 구속적 노동과 생산적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양자는 자기수양과 생산을 위한 시간이라는 점에

서 상통하고 있어, '자기수양의 계발을 위한 시간'에서 그 어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비 여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아스콜리아(a-scholia)와 로마어의 네고티움(neg-otium)은 모두 바쁨과 작업을 뜻하여(松田義辛, 1981), 여가 속성의 내용과는 거리감이 있으나 오늘날 일, 직업, 생산, 그리고 사업이라는 말로 발전하였다.

인간의 생활시간을 크게 생활필수시간, 노동시간 및 자유 시간으로 대별하게 될 때에 여가는 보통 1일 24시간의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생활필수시간 과 노동시간 등 구속시간을 뺀 나머지 자유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시간의 배분은 여가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 기초적인 틀(frame)을 제공하고 있는 데, Parker(1971)는 여가를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residual time)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학사전(Dictionary of Sociology) 에는 여가는 1일 24시간 중에서 노동, 수면, 기타 필수적인 것에 바쳐진 시간을 제외한 잉여시간(surplus time)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Brightbill(1963)은 여가를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갖게 되는 자유 재량적 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Murphy(1975)도 개인이 자기 결정적 상황(self-deterministic condition)하에서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있어, 앞의 두 가지 정의가 시간적 속성만을 중시하는데 비하여 거기에 자유와 재량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의 시간적 정의는 여가 자체를 계량화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최근에 들어 빈번하게 원용되고 있으나 자유재량시간의 불분명한 기준, 잔여시간에 대한 이중성, 계량화된 자유재량시간의 비교연구의 한계, 자유재량시간에 대한 이해곤란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적 정의나 상태적 정의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가에 대한 활동적 정의는 앞서 언급한 시간적 여가개념의 바탕 위에서 여가를 활동으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프랑스의 여가사회학자인 Dumazedier는 여가를 개인이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전환, 혹은 지식의 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그리고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하여 이용되는 임의적 활동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Dumazedier, 1967).

Dumazedier의 여가 정의를 보다 발전시킨 Wylson은 여가를 활동과 기회라는 두 요소의 결합으로 인식하면서, "노동, 가족, 사회 및 기타 의무가 실현되고 난후에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휴식, 회복, 오락, 자기실현, 정신적 재생, 지식의 향상, 기술의 개발,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공해주는 기 회"로 정의하고 있다(Wylson, 1980). 이와 같이 여가는 개인이 생활의 만족을 위한 질(quality)을 추구하고자 자유로이 선택하는 활동으로서 수면, 식사, 노동과 같이 고도로 상례화 된 활동(routinized activity)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활동적 정의는 관찰상의 용이성이 장점인 반면, 계량화를 시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앞서 언급한 시간적·활동적 정의가 객관적 정의라고 본다면, 여가에 대한 상태적 정의는 다분히 주관적 정의로서 주요 철학자나 심리학자, 그리고 종교학자들에 의해 대변되어 왔다.

먼저 그리스의 철학자 Aristoteles에 의하여 대표되는 고전적 여가 정의는 여가를 '존재의 상태(state of being)로 보고, 삶의 목적으로서 여가 그 자체를 위하여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사색, 지식과 계몽을 위한 토론과 정치가 여가의 대표적인 예로 보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85).

또한 Dahl(1971)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늘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가 는 단순한 자유시간(free time)이 아니라 자유정신(free spirit) 내지 자유의지(free will)이며,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사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가에 대하여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Neulinger(1981)는 여가가 인간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상생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경험과 마음의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가는 주어진 시간이나 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인 동시에 자유의 상태인 것이다.

여가의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자유시간과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여가 간에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반면, 여가에 대한 상태적 정의는 관찰 및 계량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용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여가에 대한 제도적 정의는 여가의 본질을 노동, 결혼,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제도의 상태나 가치패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의 중세 및 르네상스시대, 그리고 산업 혁명기에 걸친 초기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소수 부유층의 생활을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논의한 Veblen에 따르면, 여가는 상류 사회계층의 상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들의 여가는 시간의 비생산적 소

비와 과시적 소비(nonproductive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f time), 그리고 금전의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of money)로 볼 수 있다(Veblen, 1953). 그리하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가를 향유한다는 것은 부의 증거이며, 높은 사회계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1960년대 미국의 유명한 여가학자인 Kaplan에 의하면, 여가는 경제적으로 자유시간의 영역에 속하며, 참여자에 의하여 여가로 인식되고, 잠재적으로 모든 영역의 의무와 노력을 포함하여 자기계발을 하게 되고, 도한 타인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자율적 활동경험(autonomous activity-experience)인 것이다(Mills, 1970).

한편, 여가는 노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동과의 함수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환언하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피로, 권태감, 압박감에서 해방됨으로써 에너지를 보충하여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여가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다 향락화 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가는 일면 생활의 목적이 되고 있지만 노동은 여가생활을 가능케 하는 수단적 역할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가는 노동과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 요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보완적 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가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앞서 언급한 여가의 시간적·활동적·상태적·제도적 속성으로는 여가의 본질을 폭넓게 수용할 수 없다는 시각이 최근에 들어와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는 여가의 요소들이 노동이나 놀이, 교육 기타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Murphy, 1981). 따라서 여가에 대하 포괄적·통합적 정의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여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여가에 대하여 시간과 상태의 속성을 결합시킨 Wan은 "여가란 인간이 일과 후의 여유를 시간을 가장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을 보다 열심히 한다든가 또는 능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목표를 세움으로써 최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이란 충만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말한다"고 주장하였다(Wan, 1992). 따라서 여가의 포괄적 정의는 앞서 나열한 여가의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그리고 제도적 요소가 적절히 배합된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가는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사회적 참여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광득, 1997).

(2) 노인여가의 의미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은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의 역할에서도 젊은 사람 주도의 핵가족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노인의 여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령기에서도 일정한 사회적, 가정적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가 있는 시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긴 시간을 보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노인의 여가는 후자인 경우가 많다.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노년기에 매일 매일의 생활을 얼마나 유용하게 보내는가 하는 측면은 노인에게 있어 그 어느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동과 결부시켜 피로나 고독, 재생산 등을 위한 개념으로 파악되는 여가의 개념은 청장년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여가를 강제로 부여받는 측면이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이므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도움이 되는 여가선용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즉 여가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노인의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무위무용(無爲無用)의 상태일수록 고독, 고립, 무료함을 느끼게 되고, 종국에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 중에는 만성화된 무료함(chronic boredom)에서 풀려나기 위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산책하기도 하고,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집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김태현, 1994).

노인의 여가내용은 취미나 오락, 놀이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나 교육, 문화적 활동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로써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그가 처한 상황에 맞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Kaplan은 노인의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Kaplan, 1960).

①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 ②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③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욕구. ④ 정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즐기려는 욕구. ⑤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⑥ 자기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⑦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욕구. ⑧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가지려는 욕구. ⑨ 적절한 주거조건과 가족관계를 가지려는 욕구. ⑩ 정신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욕구충족들은 사회일원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자아존중과 자아정체감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중년기까지의 사회화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에 익숙해져 있을 때 노년기에 보다 유용하고 재미있고 효과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혹독한 가난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였고, 60-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여가를 통한 풍요로운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을 통한 질적인 삶을 향유하거나 노후의 복지에 대비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생애 후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아직 여가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여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시설면이나 프로그램개발 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므로 그 대책이 요구된다.

노령기를 일에 개한 압박과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았을 때, 여가는 노인의 노령기 생활을 만족스럽고 건설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노인 자신의 사기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여가는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만족과 자기충족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 될 수 있는 여가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김광득, 1997).

따라서 노인의 여가와 여가활동은 노인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노인이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려는 질적인 삶과 노인이 불가피하게 영위하여야 하는 여가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여가활동의 유형

여가활동은 서로 비슷한 내면적 특성을 가지며, 각 활동 간에 뚜렷한 구분을 하는데 있어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 따라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분류한 여러 학자들의 분류 기준 및 방법 형태가 제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관점에서 생활만족과 높은 관련을 갖는 분류 형태는 행위자의 여가형태를 기준으로 스포츠, 문화 예술 활동 등의 '하는' 여가인 능동적 여가와 독서, 음악감상, 낮잠, 영화관람 등의 '보는' 여가인 수동적 여가로 구분할 수 있다.

Kaplan(1960)은 여가의 가치지향에 따라 여가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의 사교활동(sociability)과 둘째의 단체 활동(association)은 가치를 중시하는 여가활동이며, 셋째의 게임(game)과 넷째의 예술(art)은 규율과 전통을 중시하는 여가활동이다. 그리고 다섯째의 이동활동(movement)과 여섯째의 비 이동활동(immobility)은 행동의 지향성을 강조하는 여가활동이다.

Gold(1980)는 여가행동을 활동경험에 기초하여 육체적 여가, 사회적 여가, 인지적 여가, 환경 관련 여가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육체적 여가는 활동의 주된 경험이 신체적 노력이며, 사회적 여가는 활동의 주된 경험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인지적 여가는 활동의 주된 경험이 문화, 교육, 창조 및 심미적인 활동이며, 환경 관련 여가는 활동의 주된 경험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은 여가행동이 양면성을 갖고 있음에 착안하여 여가활동의 형태를 구분하였다. 학자들에 의한 여가활동 유형의 분류는 다음 <표 2>와 같다(Gordon, Gaitz, & Scott, 1976; Iso-Ahola, 1980; Nash, 1980; 김광득, 1997; Raghed, 1980).

인간의 생활시간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데, 생활을 위한 소득활동시간, 생리적 욕구의 충족활동시간,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시간, 그리고 여가활동시간이라는 것이며, 이는 생활시간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김광득, 1997). 따라서 여가시간은 생활의 다른 시간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여가시간내의 행동은 그것의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여가활동 유형의 분류를 살펴보면, KBS가 서울대 신문연구소와 공동으로 격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생활 시간조사에 이용되는 생활활동 분류표를 보면 여가활동에는 ① 관광, 구경, 감상, ② 스포츠, ③ 승부놀이, ④ 행락, 산책, ⑤ 배워두어야 할 일, ⑥ 기능, 자격공부, ⑦어린이와의 유희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한국방송공사, 1985).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1985년에 국민의 여가활동의 실태 분석시 설정한 여가유형은 크게 ① 행락 및 관광부문에 11개 활동, ② 모임, 사교 부문에 10개 활동, ③ 감상, 관람부문에 11개 활동, ④ 스포츠부문에 23개 활동, ⑤ 취미, 교양, 창작부문에 12개 활동, ⑥ 놀이, 오락부문에 5개 활동 등 총 72개의 여가활동을 선정한 바 있다(한국관광공사, 1985).

이상에서와 같이 여가행동의 분류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인 분류형태로 여가동기 및 활동내용에 근거하여 스포츠·건강 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사교활동, 감상·관람활동, 행락·관광활동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8. 여가활동 참여의 분류

분류학자	분류기준	여가활동 유형	종 목
Compton Edignton Hason (1980)	참여의 질과 양	예술활동	음악,연극,서예,문학,미술,조각,공작
		지적활동	시, 소설 등의 작문활동 방송, 집단토의 등의 전달활동 독서, 잡지구독 등의 독서활동 회화, 세계의 문화학습 등의 활동 철학, 성경, 사회문제 등이 그룹토의
		스포츠 활동	수영, 양궁, 테니스, 복싱, 농구, 축구 등
		야외활동	공원산책, 등산, 요트 등
		취미활동	우표, 동전 등의 수집활동, 소설쓰기, 사진, 미술 등의 창조활동, 음악, 공작, 드라마 등의 교육적 활동, 댄스, 스키, 노래의 행위활동
		사교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음악, 예술, 야외활동
		사회단체활동	YMCA, 보이스카우트 활동
Ragheb (1980)	참여의 타입과 양	사교활동	파티, 전화대화, 카드놀이, 친구방문
		야외활동	수영, 낚시, 사냥, 하이킹, 캠핑
		스포츠 활동	야구, 축구, 농구, 조깅, 테니스, 배드민턴
		문화활동	무용, 연주회, 연극, 박물관방문
		취미활동	수집, 공예, 미술, 정원가꾸기, 평생교육
		대중매체활동	TV, 영화, 잡지, 신문구독, 비디오게임

표 9. 여가활동 형태의 분류

분류학자	분류기준	여가활동 유형	종 목
Orthner (1976)	활동형태	개인활동	명상
		병행활동	TV시청, 수집, 음악감상, 신문
		결합활동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
Iso-Ahlola (1980)	활동내용	스포츠 활동	보트, 야구, 농구, 볼링, 탁구, 조깅, 테니스, 수영, 스키
		사교활동	영화관람, 종교활동, 음악감상, 신문, 일광욕, TV시청, 운동경기 관람, 댄싱
		공작활동	목공예, 요리, 바느질, 모형만들기, 카드놀이, 퀴즈게임, 컴퓨터
Lutzin (1973)	동기 및 표현형태	신체적활동	스포츠, 게임, 댄스
		사교적활동	피크닉, 파티, 클럽
		문화적활동	미술, 음악, 연극, 민속
		자연적활동	낚시, 사냥, 캠핑, 하이킹, 자연학습
		정신적활동	독서, 창작, 장기

3) 노인 여가와 생활만족

노인 여가는 앞서 지적한 여가의 개념을 토대로 노년기의 특성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노인 여가는 재생산의 수단 혹은 심신 피로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년이하 연령층의 여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초한다.

일반적으로 여가가 직무의욕·직무만족·생산성 향상·창조적 재생산을 위한 휴식 등의 노동 관련성과 자유재량의 시간에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유선택성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노인의 여가는 맹목적이고 강제적으로 무료한 시간을 소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즉, 노인은 일정한 공식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료하고 만성화된 시간의 소비를 통하여 여가를 영위한다고 하겠다.

한편 노인은 공식적인 사회경제적 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정신적 불안정과 심리적 혼돈상태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자연적인 신체적 기능의 약

화로 인하여 심각한 만성적인 신체적 부적응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적응과 대책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노년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인의 여가선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실제적 적용이 매우 절실하게 되었다.

결국 노인 여가는 단순한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초월하여 이에 수반되는 심리적 적응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대체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표현적 관여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감각적 쾌락추구 활동과 창의적인 활동에 비해 기분전환이나 긴장해소 활동과 같은 표현적 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이다. 표현적 관여정도에 따른 여가활동의 분류는 <표 10>과 같다.

표 10. 표현적 관여정도에 따른 여가활동의 분류

표현적 관여도	여가활동 형태	구체적 활동
아 주 높음	감각적 쾌락추구 활동	성교, 심리활동의 약물사용(마약 등), 무아경의 종교적 체험, 공격적 행동, 경쟁의 심한 게임, 운동경기, 격정적인 춤
상당히 높음	창의적인 활동	창작 활동, 양육활동, 심각한 토의, 악기연구
중 간 정 도	발전적 활동	체조, 개인적인 스포츠, 인지적 획득(심각한 독서, 학습활동), 심미적 활동, 단체 활동 참여 (클럽 등), 관광, 여행, 학습을 위한 게임, 장난감 놀이
상당히 낮음	기분전환 활동	사교적 활동, 경기관람, 게임놀이, 가벼운 대화, 취미활동, 독서, 대중매체 이용(TV 및 라디오 시청 등)
아 주 낮 음	긴장해소 활동	혼자 있음, 조용한 휴식, 수면

자료: Teaff(1985), p. 46

노인 여가의 특성은 여가의 표현적 활동으로서의 특징이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지속된다는 점과 노인은 도구적 활동에 대한 참가욕구가 연령층에 비하여 비교적 낮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노인여가는 활동의 도구적 기능보다는 표현적 기능에 절대적 우위를 두며 노인 여가활동의 유형이 휴식으로부터 감정극복에 이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여가 및 생활만족을 가져온다(Teaff, 1985).

따라서 노인여가는 공식적인 사회적 의무를 동반한 사회적 역할보다는 비공식적 사회참가 활동 즉, 여가활동 중에서 특히 표현적 활동 중심의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기존중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생활만족 및 행복감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노인 여가의 유형은 단독 충실형, 가족 충실형, 우인 교류형, 독서형, 사회 참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 충실형 여가에는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미술 및 음악 감상·서예·다도·사진촬영·우표 및 고 화폐 수집 등이 있고, 우인교류형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담소·바둑 및 장기 등의 오락·관혼상제의 참여·비공식적 사회집단에의 활동 참여 등이 있으며, 독서형의 경우에는 서재에서 계속 독서를 하거나 문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문헌을 수집하고 관심이 있는 내용을 스크랩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가족 충실형 여가에는 정원손질·집안의 미화작업·살림살이 이동 및 배치·가정 내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가족단위 외식과 위락 등이 있고, 사회참여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동창회·친목회·지역사회 내의 정치·경제·종교적 단체에의 활동 참여 등이 있다(김태현, 1994).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단독 충실형, 우인 교류형, 사회 참여형 등의 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으며, 저학력의 노인은 독서형과 사회참여형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또한 중류층 이상의 노인은 지역사회 중심의 여가활동을 하는 반면 하류층 노인은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중류층 이상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으로부터 가정 중심의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를 한다(Atchley, 1982).

이러한 노인의 여가유형은 개인적 성격 특성이나 관습 또는 경제적 역할 능력과 학력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노년학 분야에서 Bull과 Aucoin(1975), Hoyt 외 3인(1980), Markides와 Martin(1979)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생활만족에 관련된 이론, 측정, 적용 등의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왔으며, 여가 연구에서도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Kelly와 Steinkamp(1987), Mannel과 Zuzanek(1988), Raghed와 Griffith(1982), Riddick(1985a)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Raghed와 Griffith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참가가 생활만족에 기여하는 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긍정적 관계를 제시하면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이 생활만족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iddick은 연령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 생활만족의 강한 설

명변인은 여가활동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은 수입, 직업, 건강정도 등의 변인은 생활만족에 대해 여가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여가활동은 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Sneegas(1986)는 노인 생활만족의 구성내용과 인과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되는 연령, 소득, 결혼 유무, 주관적 건강, 사회 적응력, 여가 참가수준, 여가만족 등의 일곱 개의 변인을 중심으로 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이 여가 참가수준과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생활만족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연령, 소득, 건강, 결혼 유무 또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와 여가만족도 그리고 생활만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며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은 사회적 활동과 여가 활동이다. 둘째, 여가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셋째, 여가활동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생활에서의 만족도는 높다. 넷째, 여가활동이 빈번할수록 여가만족도는 높다. 다섯째,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다는 것이다.

4. 노인과 생활 만족

1) 삶의 질의 개념

최근 들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삶이 질'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삶의 질이란 용어를 누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quality of life', 프랑스에서는 'qualite de vie', 독일에서는 'qualitat des lebens', 러시아에서는 'katchestvo zhizni'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78년에 개최된 제 9차 세계 사회학 대회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측면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몇몇 학자들이 삶의 질이란 용어가 1950년

대 말 또는 196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사회학적 문헌에서는 이 용어가 불과 10년이나 15년 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1968년에 출간된 17권의 'International Encylopeadia of the Social Science'에 있는 포괄적인 목차 부분이나 논문의 문헌 목록에서도 삶의 질이란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1968년부터 1978년 사이에 5개 국어로 출판된 백과사전에서도 삶의 질에 관련된 주제나 직접적인 언급은 발견할 수 없었다(Szalai, 1990).

이러한 삶의 질이 학문적 용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내재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삶의 질의 개념을 보다 접근해 보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삶의 질의 몇 가지 의미와 실제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은 삶의 양에 대한 반의어가 아니다. 삶의 양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의미를 개념화하기도 어렵다. 초기에 환경의 파괴와 도시화의 문제에 대한 초기의 회의나 연구에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삶의 질이란 개념을 도입했던 학자들은 1인당 GNP나 산업 생산량 또는 소비량 등과 같은 숫자상의 양적 지수로써 경제발전에 따른 인간의 삶의 수준과 복지를 나타내려는 과거의 경향에 반대하는 형태로 삶이 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삶의 특징은 '좋은' 또는 '만족스러운' 등과 같이 '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다.

둘째, '삶'이란 단어는 오직 인간의 삶의 질이란 상황 하에서 이해된다. 물론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으나 한편으론 흔히 삶의 질을 말할 때의 삶의 특정 양상을 정확하게 특징짓기는 분명히 어렵다. 즉, 일상의 삶이나 삶의 전 과정 또는 삶의 어느 한 순간이나 현재의 삶의 상태 등과 같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삶을 이해하고 정하는 문제는 그 개념적 방법론적 틀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연구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의 하나는 분할할 수 없는 속성의 용어로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는 학문적으로도 결코 예외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니다. 실제로 '수(number)', '힘(force)', '에너지(energy)', 또는 보다 최근에는 '진화(evolution)', '국가수입(national income)', '태도(attitude)'등의 학문적 용어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왔다.

넷째, 삶의 질은 인간 복지와 안녕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연구 개념들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 들어 삶의 질의 연구는 독자적인 질문과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관점, 예를 들면 인간의 타고난 권리와 관련된 특정적인 사회연구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Hornback과 Shaw는 삶의 질을 주민에 적합한 객관적 조건과 이들 조건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태도의 함수라 정의하였고, Dallkey와 Rourke는 삶의 질은 사람들의 느끼는 복지이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족감, 행복이나 불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Andrews와 Withey는 삶의 질은 단지 인간의 물리적, 대인적, 사회적 환경 조건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인간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내의 삶의 질에 관한 개념 정의는 1984년 김경동은 삶의 질을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 면과 함께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의 향상은 외적 조건과 내적 만족의 향상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삶이 질인지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욕망(wants) 또는 욕구(needs)의 만족감과 자원의 유용성 또는 환경의 조건, 일정한 수준의 주관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 및 환경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면적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는 불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 인지 척도는 대체로 삶 전체와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해 응답자로 하여금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해진다.

2) 노년기 삶의 질 구성요소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삶의 다차원성, 주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비 노년기에 대비하는 노년기 삶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와 만성질환에 따른 건강의 상실, 퇴직에 따른 경제능력의 상실과 사회적 역할의 감소, 배우자 혹은 친지들과의 사별로 인한 비공식적 관계의 축소,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소외감과 고독감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삶의 제 영역에서 의존적 욕구가 더 커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노년기 삶을 그 이전과 구별 짓는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중의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다. 노년기에는 치료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완치가 힘든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음으로 노년기 삶에 있어서는 물질적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소득감소가 퇴직 이전에 비해 급격하지 않으나, 대다수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적 연금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고 있어, 노년기의 물질적 욕구결핍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가족생활이 지니는 중요성은 생애주기상의 모든 단계에서 발견되지만,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또한 주거의 중요성이 생애주기상의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대두되는데, 이는 사회생활의 축소, 신체허약함의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의 중심이 상당부분 주거공간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 외부 환경이 노인이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회활동의 참여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거 외부 환경 역시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낮은 교육수준은 산업화·정보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대간 갈등과 부조화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년기 삶의 특수성 및 욕구를 토대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영역을 건강, 물질적 복리, 경제활동, 가족관계, 주거, 교육, 여가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노년기 삶의 질이란 이러한 영역의 노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보고, 영역별로 각각 객관적 부문과 주관적 부문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객관적 부문의 삶의 질은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측정에 있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부문의 삶의 질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즉 주관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현송, 2000).

한편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이나 행복에 초점을 둔 주관적인 삶의 질은, 삶의 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객관적인 삶의 여건과 개인·집단 등의 주관적 평가나 만족도와의 일치 정도를 파악 할 수 있게 한다(이현송, 1997). 그러나 주관적 부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당위성에 관한 논의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과 개인의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 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충족하는데 객관적 부문과 주관적 부문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생활만족의 개념

토마스 제퍼슨은 미 헌법에서 행복의 추구를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의 중요성을 믿고 있는 제퍼슨과 다른 사람들은 행복의 추구란 모든 인간행동의 권리일 뿐 만 아니라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의 추구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기본적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및 재정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욕구나 물질적 욕구에 부가하여 인간은 자존심, 사회관계 및 자아실현 등과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Maslow, 1943). 이는 경제적 만족이나 기타 기본적 만족은 행복추구의 한 측면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행복의 추구란 경제적, 물질적 그리고 다른 기본적 욕구의 부가만족에 의하여 증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단순히 개인적 가치 평과의 문제점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서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Shaver & Freedman, 1976).

주지할 만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삶의 질이란 마음속에 내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재산이나 하고 있는 일의 다소에 관계없이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물질적인 것이 행복이나, 심리학적 안녕, 혹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비록 타인의 인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지를 지니고 있는 개인은 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 정의의 기초가 된다. 많은 객관적 사실(자가용 소유, 환경오염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하여 결정하는 사람은 개인이다. 삶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심리학적 의미는 경제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다 인지된 삶의 질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행복감,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개념은 적응, 심리적 복지, 성공적 노화, 사기 등과 같은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George(1979)는 생활만족과 행복감, 그리고 사기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활만족은 인생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기는 용기, 훈련, 확신, 열의 및 고난에 대한 극복 의지 및 정신 상태로서 현재 및 미래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기대이며, 행복감은 현재에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으로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Kalish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수용하여 생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인식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순응함과 동시에 정서적 사회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생활만족으로 규정하면서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성공적인 노화는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에 대한 충만과 행복을 느끼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노년기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하여 복합적인 개념이다.

한편 노인 생활만족은 일반적인 추상적 사고로부터 출발하여 노인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를 실제로 측정하고자 했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홍순혜, 1984).

첫째, 노인 생활만족의 개념은 생활만족의 주체인 노인이 지니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또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상저긴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노인의 적응 정도나 성공적인 노화의 수준과는 구별된다.

둘째, 생활만족의 개념을 규정하려면 만족의 대상인 생활 범주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Cavan 등(1949)은 생활만족을 자신의 현재 지위와 화동에 대해 갖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한 반면, Neugarten 등 (1979)은 개인이 갖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avan의 정의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이 생활만족을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개인적 현상으로 볼 때 생활만족의 정도는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노인 생활만족은 정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의 가치 인식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서의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생활만족척도(life satisfaction index)는 1961년에 Neugarten과 Havighurst 그리고 Tobin이 개발한 것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처음으로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후의 많은 비슷한 개념들(사기, 적응, 행복도 등)을 한데 묶어 "생활만족도 및 관련 개념"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척도는 생활만족도의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5개의 차원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처음에 개발된 20개 문항의 척도를 LSI-A라 부르고 있으며 1969년에 Wood외 2인은 13개 문항으로 재정리하여 그것을 LSI-A라고 했으며, 1969년에 Adams는 18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열의(zest), 결심과 인내(resolution and fortitude), 바라던 목표와 성취한 목표와의 일치성(congruence between desired goal and achieved goal), 긍정적인 자아개념(positive self-concept), 기분의 상태(moodtone)의 dan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최초 개발시에는 보고 되지 않았으나 1969년 LSI-Z척도의 신뢰도는 Wood외 2인의 연구에서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가 .79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의 타당도는 임상적 생활만족 평가 척도와 상관계수가 .55이고, LSI-Z와의 상광계수는 .57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변호에도 민감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다른 특성에 있어서도 적용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최성재, 1986).

한편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한 연구는 1979년 이효재외 2인의 연구인 "한국주거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image)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며 14개 문항으로 이 개념을 측정하려 하였다. 300명의 도시노인에게 적용한 바 있으나 이 척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보고가 없어 척도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최성재, 1985).

윤진(1982)은 척도법의 원리에 의거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일차적인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이 연구는 생활만족도 척도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윤진은 생활만족도

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념을 생활에 있어서의 감정적인 영역과 경험적인 영역을 주요 차원으로 보고 감정부문의 8문항과 경험부분의 12개 문항의 20개 문항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다.

최성재(1986)의 노인 생활만족 척도는 노인인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노인인구에게만 그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노인복지 Program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2년 이내 정도) 평가하는 데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노인 복지시설

1) 노인 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연령에 의하여 제기되는 사회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사회복지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빚어지는 모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노인복지란 비생산적인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및 심리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는 행동 또는 조치를 말한다.

단순히 노인복지는 구빈사업이나 보험의 개념이 아니라 노인이 한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가지도록 원조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노인복지활동과 범위는 노년기를 맞이하여 생활의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질병(노인병), 빈곤, 고독, 소외 등 생활면에서의 곤란을 배제하고 노인 스스로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취해지는 현실적인 보호와 미래지향적 예방을 위한 서비스활동이 그 중심이 된다. 현대의 노인복지정책이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생활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 정책으로서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Social program for old people) 또는 "노령자의 사회적 정책" (social policy for the aged)이라고 불리고 있다.

노인 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해 Kaplan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사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건강의 증진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 및 정신의학적 서비스, 적절한 주택마련, 정신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기회보장,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 보장, 만성병 老人을 보호조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갖는 기회제공, 그리고 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등 7개항을 들고 있다(Kaplan, 1960).

노인복지에 대하여 넓은 의미로는 전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직업보장, 주택,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좁은 의미로서는 노인복지는 노령퇴직, 실업, 빈곤, 심신장애, 배우자와 가족의 사별, 애정의 상실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방생되는 생활 빈곤, 고독과 욕구불안, 불안감이나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공적 부조나 생활지도 정신의 양호나 자립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고, 육성, 갱생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개개인의 노인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로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생활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생활 면에서 욕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로형식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의 개념이 아니고 더 나아가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은 물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함과 아울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고 행사함으로써 사는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반의 원조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에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 부녀자 복지의 증진, 노인과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산능력이 없는 자의 생활보호, 재해보상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고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이론인 기회균등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국가적 책임의 원리 등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는 기회균등의 원리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취지 중의 하나는 인류평등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완전하게 평등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민이 평등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곧 복지국

가의 역할인 것이다. 국민생활상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적정한 소득분배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서는 이러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기회보장, 직업보장, 의료보장 등에서부터 노인의 사회적 역할의 실행을 원조하는 교육, 문화, 가족관계에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노인 정책이 불가피하다.

둘째, 최저생계보장의 원리이다. 최저생활이란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는 정도의 연명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순간적인 위협을 받지 않으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나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복지에서는 일반적 제도의 테두리에서 떨어지는 탈락자들에게 그러한 제도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원조를 하여야 한다. 즉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우수한 욕구를 갖는 노인은 일반적, 보편적 서비스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반적 기관에 대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시기에 어떤 처지에 봉착하더라고 최소한 안정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적 책임의 원리이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책임 하에 형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설의 기획, 설립 및 운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행정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문제의 주요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가의 책임정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2)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전략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대응전략으로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영역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적 서비스 보장으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소득보장정책은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직접보장과 간접보장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연금, 생활보장, 경로연금, 퇴직금제도, 경로우대제도, 편의증진, 생업지원, 세제혜택, 무료급식경로식당 등의 대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의료보장정책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노인

건강진단, 의료서비스 접근보장(의료서비스전달체계) 등의 대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1.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방법	프로그램	방법	프로그램
사회보험	의료보험(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특수의료시설	노인진료병동/노인병원
공적부조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 보호	요양시설	무료, 실비 및 유료요양시설

재가목적 주거보장		수용목적 주거보장	
방 법	프로그램	방 법	프로그램
노인용 주택보급 세제혜택 금융혜택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융자	수용 보호 시설	양로시설(무료, 실비, 유료) 요양시설(무료, 실시, 유료)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당면문제 해결 서비스	① 노인복지 상담원 서비스 ② 수용보호 서비스(양로 및 요양시설) ③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 ④ 가정봉사원 서비스 ⑤ 전화방문 서비스 ⑥ 전화상담
발달요구 충족 서비스	① 노인정 운영비 지원 ② 노인복지 회관 운영 및 지원 ③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④ 자원봉사자 참여활동 ⑤ 노인휴양시설 서비스
접근/ 안내 서비스	① 교통편의 시설 ② 안내 서비스

※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관련법규 요약

다른 한편 주거보장정책으로서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수용목적 주거보장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가문제와 고독(소외/갈등)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서비스보장정책으로는 노인복지상담원서비스, 노인복지회관, 노인정(경로당), 노인학교(노인교

실), 노인휴양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가 여가활동만족정도와 생활만족간의 관계 모형

본 장에서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참여와 만족의 관계에 대한 스포츠 사회학적 연구영역과 노년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에 대한 정의와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모형 그리고 가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관계 모형의 설정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문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대두되어 고령화에 따른 과제가 다방면에 걸쳐 제기된다. 즉, 시대적 사조나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경로사상의 약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부양의식의 부담 과대 등 노인 부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며, 노화현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적 주루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적응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노화는 특정 개인이 수많은 연령계층(age strata)으로 구성된 특정 연령 구조 내에서 상호 작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건강상의 손실과 행동의 지속성에 의하여 특정 지워지는 일련의 사회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Mcpherson, 1991). 따라서 노화는 정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생애 주기의 한 단계에서특정 개인 및 동료집단에 대한 고령화의 영향은 초기단계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노화는 세대내 및 세대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문화적 규범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다(Riley, 1987).

한편, 특정 개인의 노화는 개인과 동료집단 내(within)와 사이(between)에서 일생을 통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행동적 변화와 적응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차적으로 건강상의 장애나 신체적표기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활동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 생활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가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및 여가 활동 참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발적 행동과 비자발적 행동에 관한 이론적 모형인 여가활동 참여 요인의 연구를 중심으로 만족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노인의 자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배경변인으로, 여가활동 참여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여가만족과 여가몰입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했으며, 그리고 생활만족 관련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관계구조모형을 (그림 1)와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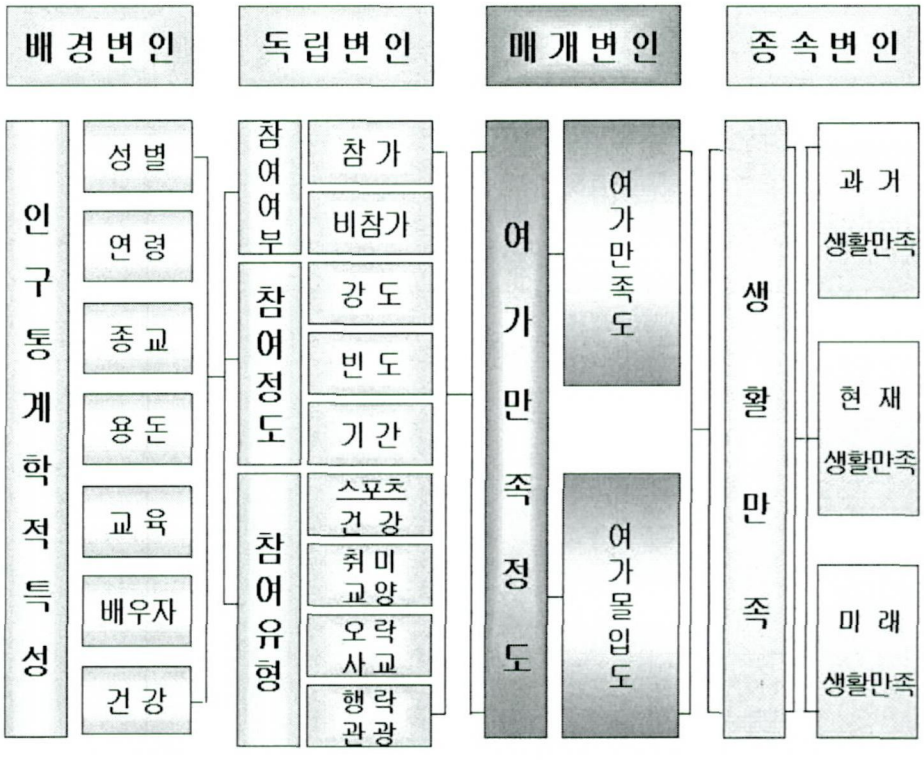

그림 1.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구조 모형

2. 관련 변인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수용 노인들의 여가 참여와 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하여 배경변인은 성별, 연령, 종교, 한달용돈,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로, 독립변인은 여가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유형으로, 매개변인은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로 그리고 종속변인은 생활만족으로 설정하였다.

1) 여가활동 참여

개인적인 의무와 가족의무에 관계되는 활동을 제외한 여가시간 동안에 종사되는 활동으로 여가동기 및 활동내용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여가활동의 참여와 비참여로 구분하고, 여가활동 참여강도는 강도·빈도·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여가활동 참여형태로는 스포츠·건강 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사교활동, 감상·관람활동, 행락·관광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여가만족

여가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개발한 Beard와 Raghed(1980)에 의하면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된다.

즉,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3) 여가몰입 경험

여가연구에서 Csikszentmihalyi(1975)에 의해 정립된 몰입경험이론은 여가를 비롯한 일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개인이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상태를 몰입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몰입상태와 경험은 그 자체가 여가상태는 아니며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과정에서 참가자의 기량과 활동상황의 난이도가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한다.

4) 생활만족

생활만족은 정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의 가치 인식에 대한 평가와 동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적 활동에서의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과거 및 현재의 삶과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여가몰입경험, 그리고 생활만족 등의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이론적 과정 및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림 2)과 같은 구조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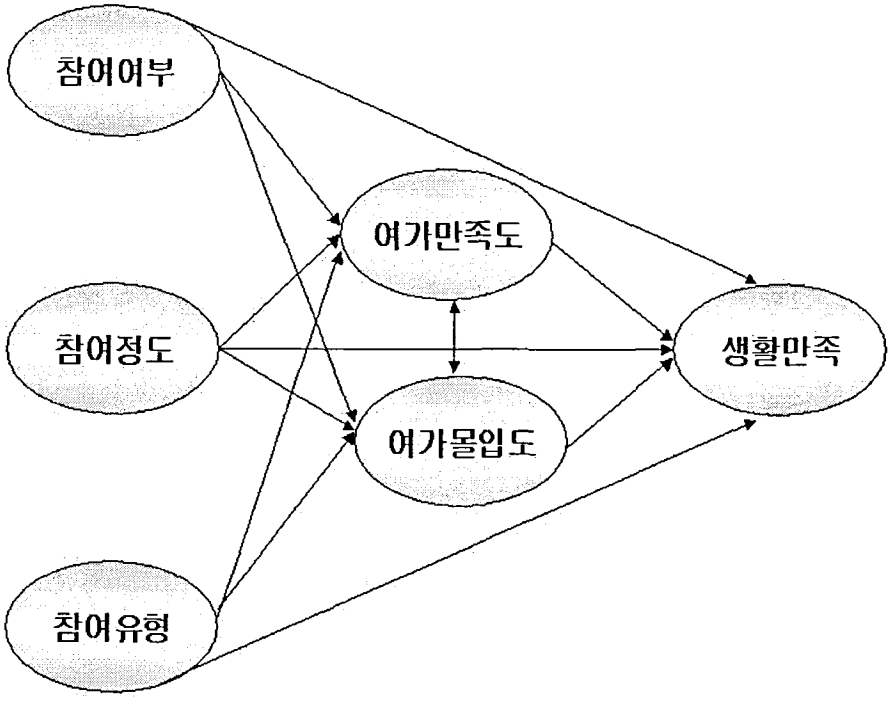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경로그림

4. 연구가설

여가활동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보다 적극적이고 친밀하게 활동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동반하는 여가활동에 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사회활동과는 다른 여가 활동을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에 몰입함으로서 노인 자신의 생활만족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론에서 제시한 관련변인의 정의 및 인과모형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Ⅰ.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여가만족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라 생활만족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라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간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정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참여 관련 요인(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유형)과 여가만족 관련 요인(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으로 나누어 이를 중심으로 가설적 관계 모형을 설정한 뒤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의 선정, 조사도구의 개발과 객관도 즉,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 절차와 자료 처리 방법 순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광주 및 전남 지역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의 표집은 체계적집락표집법(Systematic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표본의 추출절차는 광주 및 전남지역에 소재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여가활동 비 참여 노인과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표집틀(sampling framework)을 작성한 다음, 남녀 노인 각각 300명씩 60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표집 된 600명 중 건강이 쇠약하거나 설문에 이해하지 못한 노인을 제외하였으며, 실제 설문에 참가한 인원은 총 500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51부를 제외한 총 449부(89.8%)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집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 <표 12>와 같다.

표 1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집 단	빈 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성 별	남 자	217	48.3	48.3
	여 자	232	51.7	100
연 령	65-69세 미만	68	15.1	15.1
	70-74세 미만	132	29.4	44.5
	75-79세 미만	144	32.1	76.6
	80세 이상	105	23.4	100
종 교	천주교	112	24.9	24.9
	기독교	156	34.7	59.6
	불 교	126	28.1	87.7
	없음(무교)	55	12.3	100
한달용돈	5만원 이하	224	49.8	49.8
	6-10만원 미만	151	33.6	83.4
	11-14만원 미만	52	11.6	95.0
	15-20만원 미만	12	2.7	97.7
	21만원 이상	10	2.3	100
교육정도	무학	155	34.5	34.5
	한학(서당)	75	16.7	51.2
	국졸	129	28.7	79.9
	중졸	56	12.5	92.4
	고졸	22	4.9	97.3
	대졸이상	12	2.7	100
배우자 유무	있다	328	73.1	73.1
	없다	121	26.9	100
건강정도	건강한 편이다	127	28.3	28.3
	그저 그렇다	236	52.5	80.9
	허약한 편이다	86	19.2	100

2. 조사도구

복지시설 수용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이종길(1992)과 이성철(1996)이 사용한 여가활동참여 관련 문항, 김경식(1996)이 사용한 활동의 친밀도 및 정도 측정 문항 그리고 최성재(1986), Mannell & Zuzanek(1998)가 사용한 노인의 생활만족 척도를 기초로 하여 설문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작성하였다.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은 배경변인인 인구통계학적특성변인에 관한 7개 항목 7문항, 독립변인인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3개 항목 8문항, 매개변인인 여가만족 정도에 관한 2개 항목 19문항, 종속변인인 생활만족에 관한 1개 항목 20개 문항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구성지표 및 내용과 문항 수는 <표 13>와 같다.

표 13. 설문지의 구성 지표 및 내용

구성지표	구 성 내 용	문 항 수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연령, 종교, 한달용돈,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7
여가활동참여 요인	참여 여부, 참여강도, 참여유형	8
여가만족 정도 요인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19
생활만족 요인	과거 생활에 대한 평가, 현재 생활에 대한 인지,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	20
총 문 항 수		54

2) 조사도구의 내용

(1) 인구통계학적관련 요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종교, 한달용돈, 학력,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등 7개 항목 7개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여로, 연령은 65세부터 80세 이상의 4단계로, 종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없음의 5단계로, 용돈은 5만원부터 21만원 이상의 5단계로, 학력은 무학, 한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의 6단계로, 배우자 유무는 있다, 없다의 2단계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허약한 편이다의 3단계 등으로 분류하였다.

(2) 여가활동 참여 정도 요인

여가활동은 여가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참여활동으로 여가동기 및 활동내용에 근거하여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하였다(김환희, 2002; 김형오, 2002).

여가활동 참여강도는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기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가활동에 목적성을 두고 참가하고 있다는 "1점", 참가하고 있지 않다는 "0점"을 부여하여 가변인화 하였다. 여가활동 참여강도의 참여빈도는 참여하는 횟수로 "거의 매일"에서 "한 달에 1-2회"까지, 참여강도는 "거의 하루 종일"에서 "1시간 이하"까지, 참여기간은 "2년 이상"에서 "3개월 미만"까지로 5단계 Likert Scale로 구분하여 1점에서 5점의 평정 점수를 주었다. 여가활동 참여유형으로는 스포츠·건강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사교활동, 행락·관광활동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3) 여가만족 정도 요인

여가만족의 변인은 Beard와 Raghed(1980)가 개발한 여가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번안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교육적·사회적·휴양적·생리적·환경적 등의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하위척도의 문항 수는 15개 문항이다. 여가만족척도 요인은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가몰입정도요인은 Csikszentmihalyi(1975)가 개발한 몰입경험 이론을 Omidei와 Wearing(1990)이 사용한 몰입경험의 4개 측정문항을 이종길(1992)이 국내 정서에 맞게 번안하여 설문문항을 여가몰입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고와 행동의 일체성, 정신적 집중 경험, 활동에서의 완전 몰입, 시·공간 개념의인지적 결여 등으로 몰입경험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문항이다. 여가몰입경험 요인은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4) 생활만족

생활만족은 최성재(1986)에 의해 개발된 생활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 생활만족을 일상생활의 역동성에 기초한 동적인 측면과 노인 개인의 생애주기에 기초한 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정도 등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척도는 과거 6개 문항과 현재 8개 문항 그리고 미래 6개 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의 응답척도는 "그렇다" 1점에서부터 "그렇지 않다" 3점까지 Likert Scale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생활만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설문지의 타당도

(1) 탐색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공통분산(cumulative), 고유치(eigen value)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인과 문항을 찾았다. 요인계수의 추출방법은 고유치(eigen value)가 1.0이상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고, 인자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 방법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14>은 여가만족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로서, 고유값이 1이상인 2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1요인은 15문항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아서 여가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제2요인은 4개 문항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아서 여가몰입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아래 두 가지 요인을 통해 여가만족정도의 전체 변량 중 69% 정도를 예측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이 여가만족정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5>는 생활만족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로서, 고유값이 1이상인 3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1요인은 6문항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아서 과거 변수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제2요인은 8문항에서 높은 적재량으로 구성되어 현재 변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제3요인은 6문항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아서 미래 변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아래 세가지 요인을 통해 여가활동참여 정도의 선행요인의 전체 변량 중 64% 정도를 예측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내용이 여가활동참여강도의 선행요인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 여가만족정도에 대한 탐색요인 분석결과

문 항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공분산비 (h)
	요인1(여가만족)	요인2(여가몰입)	
II - 1	.934	-4.521E-02	.874
II - 2	.914	-7.148E-02	.854
II - 3	.906	-6.845E-02	.821
II - 4	.897	-2.351E-02	.804
II - 5	.891	-1.259E-02	.778
II - 6	.886	.128	.753
II - 7	.881	-016	.712
II - 8	.875	-1.251E-02	.708
II - 9	.870	-8.651E-02	.689
II - 10	.852	-4.361E-02	.679
II - 11	.836	-2.632E-02	.651
II - 12	.812	-181	.634
II - 13	.805	.201	.621
II - 14	.779	.124	.604
II - 15	-8.125E-02	.889	.804
II - 16	.254	.862	.771
II - 17	-3.631E-02	.774	.758
II - 18	-.124	.710	.694
II - 19	-2.514E-2	.682	.635
고유치(Eigen value)	3.465	3.251	
분산비(Proportion)	36.365	33.324	
공통분산(Cumulative)	36.365	69.689	

표 15. 생활만족도 요인에 대한 탐색요인 분석결과

문 항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공분산비 (h)
	요인1(과거)	요인2(현재)	요인3(미래)	
III - 5	.922	1.196E-02	1.171E-02	.855
III - 6	.886	-9.704E-02	4.532E-02	.800
III - 4	.856	-2.426E-02	1.142E-02	.741
III - 3	.815	.215	.115	.795
III - 2	.775	-.137	3.505E-02	.784
III - 1	.703	6.913E-02	-.370	.756
III - 10	-8.341E-02	.743	-.265	.732
III - 7	-1.020E-02	.716	-4.437E-03	.721
III - 9	4.614E-02	.679	3.410E-03	.711
III - 8	7.818E-03	.647	2.671E-03	.697
III - 13	-.125	.614	-.431	.682
III - 11	2.086E-03	.576	.206	.674
III - 14	.215	.569	-210	.653
III - 12	1.765E-02	.554	.120	.632
III - 16	2.856E-02	3.530E-02	.794	.608
III - 15	4.352E-03	4.201E-20	.768	.597
III - 17	.203	2.490E-03	.751	.572
III - 18	-.325	-328	.742	.554
III - 19	.127	207	.705	.541
III - 20	2.590E-02	-.227	.652	.509
고유치(Eigen value)	2.426	1.984	1.765	
분산비(Proportion)	27.260	19.843	17.651	
공통분산(Cumulative)	27.260	47.103	64.754	

(2)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여가활동참여의 선행요인과 여가만족정도 그리고 생활만족 측정도구의 차원이 이를 측정코자 하는 문항에 의해 적절히 구분되어지고 이러한 가설된 측정모형구조가 자료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탐색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자료에 대한 부합도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전반적 부합지수를 보면 <표 16>와 같다.

표 16. 전반적 부합지수

전반적 지수	x^2	df	p	AGFI	GFI	RMR
	1140.124	317	.000	.821	.838	.0068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지수로서 x^2 값은 모형의 적합도가 높을수록 자유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자유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x^2 값이 크다는 것은 제약조건이 반영된 표본자료 무형과 이론모형과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x^2 에 의한 모형 적합도는 p값이 .05 이상 일 때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x^2 = 1140.124(p=.000), 자유도는 317으로서 확률값이 .05이하여서 모형과 자료가 잘 맞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x^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x^2 검점의 p값이 .05이하라고 해서 모델 전체의 적합도가 낮아진다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지수를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권업, 2001).

기초부합치(GFI: goodness of fit index)는 주어진 모형이 자료의 공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회귀분석에서의 R^2 값과 유사하다. 따라서 GFI는 0과 1사이에 있으며 0.9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자유도 의해 조정된 GFI지수로서 대체로 GFI보다 작으며 0.9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GFI=.838,

AGFI=.821으로써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원소 간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 reaidual)는 분석 자료의 행렬(matrix)과 미지수들에 의해 재생산된 행렬간의 원소들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분석 자료가 상관자료이면 대략 .05이하의 좋은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 모형의 RMR 지수 .0068은 이 기준에 접근할 때 잘 맞는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자료에 부합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설문지의 신뢰도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 등과 관계가 있으며,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시 반복하여 측정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검사-재검사법, 반분비교법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내용의 구성지표별 신뢰도는 <표 17>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본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변인의 문항간 신뢰도는 여가 만족정도와 생활만족 요인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정결과, Cronbach α는 각각 .893, .847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설문지의 신뢰도

변 인	Cronbach α
여가 만족정도	.893
생활만족	.847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1) 조사절차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응답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연구자는 첫째, 면접조사 경험이 있거나 본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C대학교 석사과정 대학원생과 재학생 10명을 조사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교육 및 인터뷰 방법 등에 대해 3일 동안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본 연구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관장 및 사회복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각 문항에 대한 구술적 설명과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에 따라 1:1 개별 심층면접으로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조사일정은 2005년 6월12일부터 8월25일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설문지의 작성은 노인들이 글을 못 읽거나 문장 이해력 부족을 고려하여 조사원이 설문문항을 직접 읽어주면서 내용을 이해시키고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파악한 후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설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노인들은 질문문항에 대한 내용과 질문의 목적 그리고 기입요령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자료처리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분석이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만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0.1과 AMOS 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교차분석과 빈도와 비율, 그리고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여가활동 참여강도에 따른 생활만족에 대한 차이는 군집분석으로 그룹을 분류하고,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경로분석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는 AMOS 5.0을 이용하여 여가활동 참여강도가 여가만족저도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인과구조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정도 차이분석

<표 18>과 <표 19>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남자 노인들이 여자 노인들 보다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여가활동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70세 이상에서 69세 이하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가 기독교, 천주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종교에 상관없이 여가활동에 몰입하며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에 따라서는 10만원 이상이 10만원 미만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여가활동에 몰입하며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노인들은 10만원 이상 용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중졸이상이 국졸이하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몰입하며 보다 계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도에 있어서는 허약한 편이다가 건강한 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허약할수록 여가활동에 몰입하지 않으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노인들은 건강한 삶을 보내기 위해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몰입정도에 따라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준비할수록 여가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몰입의 차이분석

변 인	구 분	참여유형		F
		M	SD	다중비교
성 별	남 자	3.71	1.09	132.45***
	여 자	3.56	1.75	
연 령	① 65-69세미만	2.91	1.24	59.784*** ①<③,④
	② 70-74세미만	3.51	1.40	
	③ 75-79세미만	3.89	1.11	
	④ 80세 이상	3.91	1.29	
종 교	① 천주교	3.01	1.17	4.323** ①,②<③,④
	② 기독교	3.11	1.43	
	③ 불교	3.52	1.52	
	④ 없음	3.55	1.82	
한 달 용 돈	① 5만원 이하	2.52	1.58	43.754*** ②,③<④<⑤
	② 6만원-10만원미만	2.68	1.31	
	③ 11만원-14만원미만	2.90	1.75	
	④ 15만원-20만원미만	3.14	1.17	
	⑤ 21만원 이상	4.00	1.55	
교 육 정 도	① 무학	2.69	1.55	24.153*** ①,②<④,⑤,⑥
	② 한학	2.76	1.22	
	③ 국졸	2.91	1.81	
	④ 중졸	3.49	1.74	
	⑤ 고졸	3.53	1.46	
	⑥ 대졸이상	3.55	1.11	
건 강 정 도	① 건강한 편이다.	3.41	1.95	12.027*** ③<①,②
	② 그저 그렇다.	3.32	1.10	
	③ 허약한 편이다.	2.69	1.56	

①,②,③,④,⑤,⑥ : 튜키의 다중비교, **p<.01, ***p<.001

표 19.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의 차이분석

변 인	구 분	여가만족정도		F
		M	SD	다중비교
성 별	남 자	3.81	1.19	132.45***
	여 자	3.66	1.15	
연 령	① 65-69세미만	3.01	1.14	59.784*** ①,②<③,④
	② 70-74세미만	3.21	1.10	
	③ 75-79세미만	3.99	1.12	
	④ 80세 이상	4.01	1.30	
종 교	① 천주교	3.21	1.32	4.323** ①,②,③<④
	② 기독교	3.31	1.23	
	③ 불교	3.62	1.32	
	④ 없음	3.65	1.72	
한 달 용 돈	① 5만원 이하	3.52	1.68	43.754*** ①,②,③<④<⑤
	② 6만원-10만원미만	3.68	1.41	
	③ 11만원-14만원미만	3.90	1.55	
	④ 15만원-20만원미만	4.14	1.37	
	⑤ 21만원 이상	4.20	1.45	
교 육 정 도	① 무학	3.69	1.35	24.153*** ①,②< ③,④,⑤,⑥
	② 한학	3.76	1.32	
	③ 국졸	3.91	1.41	
	④ 중졸	3.99	1.64	
	⑤ 고졸	4.03	1.76	
	⑥ 대졸이상	4.10	1.31	
건 강 정 도	① 건강한 편이다.	3.61	1.85	12.027*** ③<①,②
	② 그저 그렇다.	3.41	1.50	
	③ 허약한 편이다.	2.89	1.66	

①,②,③,④,⑤,⑥ : 튜키의 다중비교, **p<.01, ***p<.001

<표 20>은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기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과 종교에서는 참여기간을 제외한 참여빈도, 참여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달 용돈에 따라서는 참여기간을 제외한 참여빈도, 참여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정도에 따라서는 참여기간을 제외한 참여빈도, 참여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0.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정도의 비교

변 인 \ 여가만족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기간	
		M	SD	M	SD	M	SD
성 별	남	2.60	.71	2.58	.77	3.25	1.4
	여	2.61	.70	2.61	.66	3.16	.68
F 값		.011		.189		.818	
연 령	① 65-69세미만	2.53	.63	2.52	.61	3.18	.66
	② 70-74세미만	2.76	.75	2.65	.70	3.43	.70
	③ 75-79세미만	2.75	.68	2.75	.76	3.30	.64
	④ 80세 이상	2.84	.80	2.73	.68	3.28	.57
F 값		4.741**		5.683**		.556	
다중비교		②<④		②<③,④			
종 교	① 천주교	2.70	.67	2.75	.73	3.24	1.20
	② 기독교	2.59	.61	2.58	.65	3.15	.68
	③ 불 교	2.89	.82	2.93	.64	3.34	.75
	④ 없음	2.11	.60	2.22	.62	2.67	.65
F 값		3.549*		5.926***		.815	
다중비교		③<①,②		②<①,③			
한 달 용 돈	① 5만원 이하	2.58	.74	2.56	.70	3.26	.64
	② 6만원-10만원미만	2.56	.66	2.61	.57	3.19	1.17
	③ 11만원-14만원미만	2.79	.70	2.79	.81	3.17	.70
	④ 15만원-20만원미만	2.41	.74	2.31	.70	3.00	.85
	⑤ 21만원 이상	2.45	.59	2.28	.63	2.86	.76
F 값		2.594*		4.128**		.724	
다중비교		①,②<③		①,②<③			
교 육 정 도	① 무 학	2.12	.64	2.33	.68	2.41	.73
	② 한 학	2.01	.61	2.21	.65	2.38	.71
	③ 국 졸	3.51	.84	3.48	.94	3.71	.95
	④ 중 졸	2.45	.72	2.55	.73	2.48	.78
	⑤ 고 졸	2.42	.68	2.51	.70	2.53	.81
	⑥ 대졸 이상	2.33	.65	2.41	.67	2.38	.71
F 값		2.684*		3.215**		2.541*	
다중비교		④<③		④<③		⑤<③	
건 강 정 도	① 건강한 편이다.	2.76	.60	2.78	.77	3.29	1.6
	② 그저 그렇다.	2.59	.70	2.59	.65	3.11	.69
	③ 허약한 편이다.	2.52	.74	2.51	.66	3.20	.67
F 값		3.135*		4.088*		1.045	
다중비교		②<①		②<①		③<①	

①,②,③,④,⑤,⑥ : 튜키의 다중비교, *p<.05, **p<.01, ***p<.001

2.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비교

1)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차이 비교

아래의 <표 21>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는가를 t 검정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참가자는 비참가자들에 비해 여가만족도나 여가몰입도에 만족하는 노인들이 생활만족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몰입도, 여가만족도, 생활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과거 생활 보다 현재생활에 대한 계획과 미래생활에 만족하기 위한 기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1.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만족 비교

요인	참가자		비참가자		t(p)
	M	SD	M	SD	
여가몰입도	3.48	.48	2.88	.44	27.167(.000)
여가만족도	3.95	.56	2.52	.59	26.453(.000)
생활만족	21.26	7.34	17.63	8.65	12.543(.000)

2)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경로분석

<표 22>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들의 생활만족에 대해 AMOS에 의한 다모집단 동시 요인분석(simultaneous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생활만족의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β=.675와 여가만족도에 대한 여가몰입도의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β=.625로 나타나 설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p=.00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참가하지 않

는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대한 여가만족도의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β=.547와 여가몰입도에 대한 여가만족도의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β=.367로 나타나 설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과 여가만족도에 통계적으로 p=.000, 여가몰입도와 여가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2.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생활만족 경로계수

참가자		비참가자	
경 로	표준화 경로계수(β)	경 로	표준화 경로계수(β)
여가만족도➡생활만족도	.675***	생활만족도➡여가만족도	.547***
여가만족도➡여가몰입도	.625***	여가몰입도➡여가만족도	.367**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들의 생활만족에 대한 구조모형의 자료에 대한 부합도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전반적 부합지수를 보면 다음 <표 23>와 같다.

참가자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Chi-Square(x^2)는 181.278(p=.000)로 나타났으나, GFI=.945, AGFI=.951, RMR=.034로 나타나 적합된 구조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비참가자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Chi-Square(x^2)는 189.254(p=.012)로 나타났지만, GFI=.931, AGFI=.894, RMR=.051로 나타나 이들을 종합하면 적합된 구조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23. 여가활동 참가자, 비참가자의 구조모형 부합지수

구 분	x^2	df	p	AGFI	GFI	RMR
참가자	181.278	72	.000	.951	.945	.034
비참가자	189.254	74	.012	.894	.931	.051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은 여가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몰입하는 것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에 낮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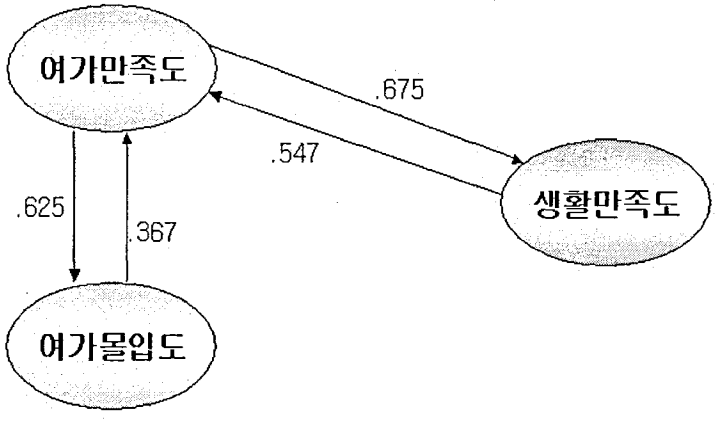

그림 3. 여가활동 참가자 ·비참가자의 생활만족에 대한 경로분석

3)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차이

<표 24>은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노인의 참여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는 스포츠·건강(3.86)과 행락·관광(3.84)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가몰입도는 스포츠·건강(3.75)과 취미·교양(3.53)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생활만족도는 스포츠·건강(33.22)과 오락·사교(31.22)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노인들은 주로 스포츠·건강 활동에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정서적 여가를 보내기 위해 취미·교양 활동이나 행락·관광활동을 통해 오락·사교 활동에도 일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생활만족 차이 비교

요인	스포츠·건강		취미·교양		오락·사교		행락·관광		F	p
	M	SD	M	SD	M	SD	M	SD		
여가만족도	3.86	.34	3.66	.36	3.59	.45	3.84	.35	22.431	.000
여가몰입도	3.75	.38	3.53	.64	3.24	.65	3.52	.52	6.984	.000
생활만족도	33.22	7.26	24.72	24.53	31.22	.48	25.01	.69	2.543	.031

4) 여가활동 참여 정도, 여가만족정도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표 25>은 여가활동 참여강도 요인, 여가만족 요인, 생활만족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참여기간↔여가만족도(상관계수=.57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여가몰입도↔여가만족도 (상관계수=.556), 생활만족도 요인의 미래생활↔현재생활(상관계수=.5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 요인이 높으면 여가만족도 요인과 여가몰입도 요인이 높고,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측정항목간의 상관계수

요 인	여가활동 참여 정도			여가만족 정도		생활만족도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기간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과거생활	현재생활	미래생활
참여빈도	1.000							
참여강도	.150**	1.000						
참여기간	.138**	164**	1.000					
여가만족도	.210**	245***	.573***	1.000				
여가몰입도	.221**	.224**	.335***	.556***	1.000			
과거생활	.241***	.268**	.312***	.331***	.215**	1.000		
현재생활	.236**	.231**	.268**	.321***	.343***	.433***	1.000	
미래생활	.221**	.187**	.216**	.342***	.284***	.312***	543***	1.000

3.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

구조모형의 자료에 대한 부합도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전반적 부합지수를 보면 다음 <표 26>와 같다.

연구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를 나타내는 Chi-Square($\chi 2$)는 295.416(p=.000), 자유도는 295로서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모형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만 $\chi 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다. 한편, GFI=.888, AGFI=.804, RMR=.0404의 값들은 모형의 적합도 판단의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어 연구모형이 실증자료에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구조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

전반적 지수	x^2	df	p	AGFI	GFI	RMR
	295.416	295	.000	.804	.888	.0404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자료에 부합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조방정식 추정

본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요소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27>과 같이 나타났다.

표 27.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간의 경로계수의 추정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참여빈도 ➡ 생활만족도	.154	.040	1.214***
참여빈도 ➡ 여가만족도	.063	.051	1.328***
참여빈도 ➡ 여가몰입도	.216	.063	12.412**
참여강도 ➡ 여가만족도	.268	.055	1.995**
참여강도 ➡ 여가몰입도	.176	.063	2.778**
참여강도 ➡ 생활만족도	.320	.055	1.408***
참여기간 ➡ 여가만족도	.209	.057	1.802***
참여기간 ➡ 여가몰입도	.144	.141	3.748**
참여기간 ➡ 생활만족도	.454	.039	3.122***
여가만족도 ➡ 생활만족	.059	.065	2.293***
여가몰입도 ➡ 생활만족	.129	.067	4.569***
여가만족도 ➡ 여가몰입도	.166	.072	1.785***

**p<01, ***p<.001

(1)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만족정도 분석 결과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기간으로 구성된 여가활동 참여요인이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요인으로 구성된 여가만족 정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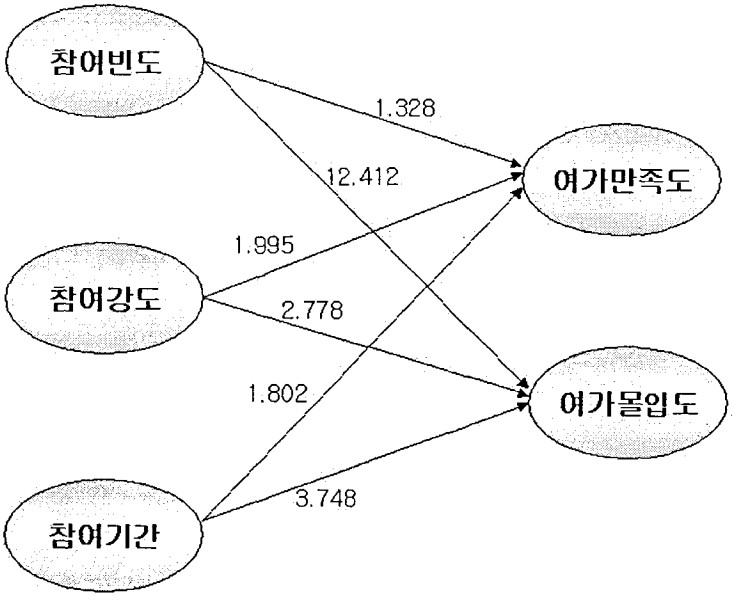

그림 4. 여가활동 요인과 여가만족정도간의 경로모형

참여빈도와 여가만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 대응하는 t값은 1.995로 나타났고, 참여강도와 여가몰입도 간의 관계에서는 t=2.77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과 여가만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 대응하는 t 값은 1.802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과 여가몰입도 간의 관계에서는 t=3.748로 나타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기간은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에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가만족정도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요인으로 구성된 여가만족 정도 선행 요인이 생활만족 요인으로 구성된 여가만족 정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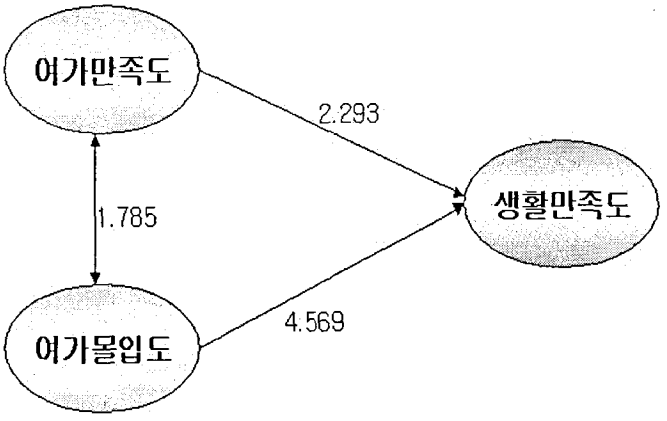

그림 5. 여가만족정도와 생활만족간의 경로모형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 대응하는 t값은 2.293로 나타났으며, 여가몰입도와 생활만족도 간에서는 t=4.5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만족도와 여가몰입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 대응하는 t값은 1.785로 나타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가만족 정도 요인은 여가활동에 만족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몰입하여 생활에 만족하고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수록 여가활동에 몰입하며 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정도,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관련 구조모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각 경로계수들의 추정값과 표준오차 및 이에 대응하는 t값이 위의 <표 28>의 결과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가활동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기간은 여가만족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노인들의 인과효과의 분석

가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참여빈도 ➡ 여가만족도	.063	.036	.099
참여빈도 ➡ 여가몰입도	.216	.010	.226
참여빈도 ➡ 생활만족도	.203	.005	.208
참여강도 ➡ 여가만족도	.268	.029	.297
참여강도➡ 여가몰입도	.176	.044	.220
참여강도 ➡ 생활만족도	.320	.044	.364
참여기간 ➡ 여가만족도	.206	.024	.230
참여기간 ➡ 여가몰입도	.144	.034	.178
참여기간 ➡ 생활만족도	.454	.035	.489
여가만족도 ➡ 생활만족도	.059	.026	.085
여가몰입도 ➡ 생활만족도	.159	.010	.169
여가만족도 ➡ 여가몰입도	.166	-	.166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가와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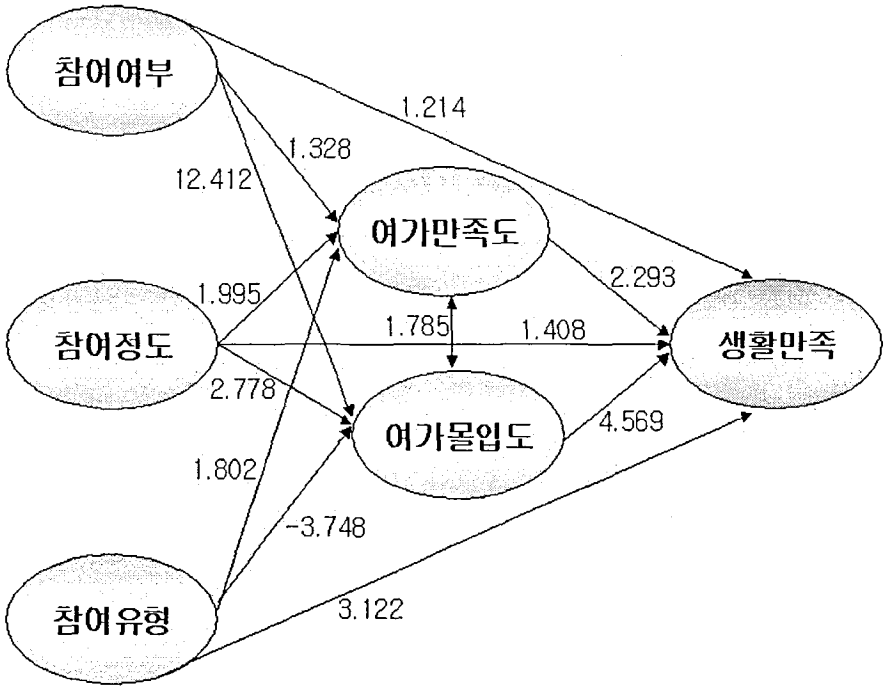

그림 6. 여가활동 참여요인, 여가만족정도, 생활만족간의 경로그림

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첫째, 노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분석, 둘째, 노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정도 분석, 셋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생활만족의 차이, 넷째,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의 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인구통계학적특성과 여가활동 참여유형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Ⅰ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은 스포츠·건강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활동과 오락·사교활동 그리고 행락·관광활동 순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동 참여 유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스포츠·건강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노인들이 남자 노인들에 비해 여가시간을 건강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들은 스포츠·건강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노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삶에 대한 집착력과 독립적 생활을 위해 체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과 생활만족간의 연구에서 Medley(1980)은 연령과 여가만족정도간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종교유무에서는 불교를 종교로 가진 노인들이 기독교나 천주교를 가진 노인들에 비해 스포츠·건강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 불교를 가진 노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노인들에 비해 종교활동이 자유스럽고 시간

적 접근이 어려워 특별한 날을 기준으로 불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에 대한 인지는 종교가 있는 노인이 높게 나타나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와 여가만족정도간의 유의할 만한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낸 김종숙(198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용돈과 수입은 생활만족을 나타내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수입과 주관적 안녕 상태를 긍정적 상관관계로 보아 수입에 대한 만족과 행복과는 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달에 10만원 미만을 사용한 노인들이 스포츠·건강활동과 취미·교양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복지시설 거주 특성상 노인들이 많은 용돈을 소비하며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농경사회와 전쟁으로 인해 절약이 몸에 배어 생활 속에서도 절약하며 스포츠를 통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달용돈과 노후준비 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 변인과 여가만족 정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재구(1986)은 경제적 부나 생활조건 등은 어느 수준까지는 개인의 행복감과 비례했지만 일정한 경계선을 지나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교육정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건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미래의 삶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여가활동 참여 유형 간에 유의할 만한 관계가 있다는 이성철(199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건강정도에서는 스포츠·건강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스포츠를 통해 노후생활을 즐기며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의 경우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1998) 보고에서 노인 생활만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Meley(1980)의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인 건강정도가 생활만족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생활만족 관련 연구에서 성, 연령, 건강, 교육수준, 용돈,

종교, 건강활동(김태현, 1986)의 인구통계학적특성 변인과 노인들의 생활만족간의 유의한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Ⅱ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생활만족에 대한 관계는 여가활동에 참여한 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그리고 생활만족에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들의 생활만족에 대한 결과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여가만족도(β=.67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몰입도(β=.625) 또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들의 여가만족도 정도 요인에서 여가만족도와 여가몰입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종길(1992)의 노인의 사회체육 참가집단이 비참가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Beard & Raghed(1980)은 여가만족에 대해 여가활동을 통하여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한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혹은 감정이다. 즉, 여가만족도란 일반적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움이나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여가에 대한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비롯된다. 노인에게 있어서 여가는 활동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은 생활만족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감정을 좌우하는 건강과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은 생활만족과 관련된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특정 여가활동은 여가만족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몰입경험에 있어서도 여가

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활동목적과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개인의 기량이 주어진 환경의 난이도와 조화를 이룰 때 몰입 정도를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Csikszentmihaly의 지적이 있듯이, 자유선택성과 자발적 참여를 속성으로 하는 여가활동에 참여는 몰입정도의 수준과 횟수를 보다 높고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인위적인 조직에 의하여 활동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다른 활동에 비하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개인이 주어진 환경의 난이도를 부합되도록 자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Preston(1987)은 양로원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과 고독감과의 관계 연구에서 양로원에서의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합치된다고 하겠다.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에 참가한 노인이 비참가 노인에 비해 과거생활만족에 대한 평가 보다는 현재 생활만족에 대한 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더욱이 미래의 생활만족에 대한 기대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노년기 이전의 직업 및 생활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에 대체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Miller와 Cafasso(1992)의 이론을 통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 참가자의 현재의 생활만족에 대한 인지와 미래의 생활만족에 대한 기대에 미루어 보아 연구의 결과가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3.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Ⅲ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정도변인에서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그리고 생활만족 간에는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과정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간에 내재된 인과적 관계를 여가활동 참여변인에 참여빈도⇨생활만족(β=.241),여가만족정도변인에 여가만족도⇨생활만족(β=.276) 여가몰입도⇨생활만족(β=.274)로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만족의 경로 중에서 여가활동참여요인인 참여강도와 여가몰입도, 참여유형과 생활만족에서는 인과적 간접효과를 제외한 모든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여가활동을 통해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은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의 만족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몰입경험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Omodei와 Wearing(1990), 이종길(1992)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여가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동시에 여가에의 몰입상태를 경험하며, 여가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몰입 상태를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도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만족은 긍정적으로 생활만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가 및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은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결과(원형중, 1994; 이종길, 1992; Mannel & Zuzanek, 1988) 등에 의하여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원형중(1994)은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관련 변인이 인과적 관계에 있어서 여가만족(β=.393), 가족관계 만족도(β=.312), 고독감(β=-.291) 등을 보임으로써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도가 생활만족에(β=.276)의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가몰입경험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인과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가활동과정에서 여가몰입도가 높으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역할상실로 인한 좌절 및 소외감 등의 정서적 경험이 비교적 적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Bultena와 Wood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얻은 여가몰입경험은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되었다. 그러나 Preston(1987)은 양로원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과 고독감과의 관계 연구에서 여가활동에의 심취 정도가 고독감을 저하시키지 못 할뿐만 아니라 여가만족을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과는 상치된 결과였다.

Riddick(1985a)의 사회체육 참가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많은 선행연구는 정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정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사회적 의무를 동반한 사회적 역할 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 활동 즉, 여가활동을 통하여 생활에 만족하며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소외 및 심리적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기존중과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생화만족 및 행복감을 추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은 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 무력감 또는 소외감 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역할상실 이후 느끼는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부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여가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통한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다양한 사회 심리적 변인에 따른 여가만족정도 및 생활만족과의 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함으로써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의 생활만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경험적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5년 광주 및 전남 지역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체계적집락표집법(Systematic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449명(89.8%)의 남녀 노인을 표집 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이종길(1992)과 이성철(1996)이 사용한 여가활동참여 관련 문항 김경식(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활동의 친밀도 및 정도 측정 문항 그리고 최성재(1986), Mannell & Zuzanek(1998)의 노인의 생활만족 척도를 기초로 하여 설문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표집대상의 배경변인인 인구통계학적특성 변인에 관한 7개 항목 7문항, 독립변인인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3개 항목 8문항, 매개변인인 여가만족 정도에 관한 2개 항목 19문항, 종속변인인 생활만족에 관한 1개 항목 20개 문항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기입방법은 질문문항에 대한 내용과 질문의 목적 그리고 기입요령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된 통계기법은 교차분석과 빈도와 비율 그리고 유의성(p=.05), 군집분석,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구조모형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는 성별, 연령, 종교, 한달용돈, 교육정도, 건강정도 등의 선행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스포츠·건강 활동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가만족정도에서도 성별, 연령, 종교, 한달용돈, 교육정도, 건강정도 등에서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이 여가만족도와 여가몰입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여가만족도나 여가몰입도에 만족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에도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간에는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은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의 인과적 효과에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시설의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환경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부적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여가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절차 및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실제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절차와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복지시설에서 여가시설은 그 시설이 대부분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으므로 복지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신축 시 여가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법규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의 후원회를 조직하여 꾸준한 복지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노인교실 및 유료시설의 경우 노인들에게 시설사용료의 인하 및 무료 개방을 추구하고 노인들과 젊은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노인 여가에 대한 종합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둘째,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욕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국 또는 지역별 노인체육대회를 상설화하여 노인들의 건강에 자신감과 성취의욕을 심어 주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유대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노인 복지시설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동아리 모임을 조직화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노인 여가활동 지도를 위한 노인 여가 지도자의 양성과 배치가 이루어져 프로그램을 계획·지도하여야 하겠다.

노인의 여가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노인 여가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홍구(2000).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8호. 한국노인복지학회.

권 업(2001). 2001 LISREL 동계특강. 미간행 강의교재,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대구.

김경동(1984).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김경식(199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득(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김수춘(1995).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설향(2005). 치매노인을 위한 신체자극 운동프로그램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5호, pp. 503-515.

김종숙(1987).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한희(2002). 노인 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오(2002). 한국 노인여가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 발달과업 성취도와의 상관 연구. 성신연구 논문집, 제23호.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민재성 외(1994).「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p.64.

민혜숙(1999).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메타기억이 기억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석돈(1994), 사회복지시설과 제도론, 대구, 형설출판사, 23 쪽

박용범 · 김학신(2003). 노인 여가활동의 발전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0호. pp697-708.

서병숙(1993). 노인연구. 서울 : 교문사.

설민신(2000). 노인건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서울: 학문사.

유희영(2002).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정책의 발전방향, 한

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이중(1996).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진(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198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초록집.
이동수, 권판근(2003).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및 고독감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3). 227-237.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 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종영(1992). 스포츠와 삶의 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세미나자료집,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서울 : 유풍출판사. p.56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1집, 269-301.
이현송(2000). 소득이 주관적 삶에 미친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0.
양경희(2000). 노인의 건강신념과 건강관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남순(1999). 현대노인복지론, 법무사.
최성애(1998). 노인의 레저 스포츠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성재(1985). 노후의 바람직한 여가선용. 노인생활, 통권 44호, 13-24.
최성재(1986). 노인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집, 233-258.
홍성희(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재구(1986).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

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혜원(2000). 노년기 여가참여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민생활체육협의회(1998). 건강실천 100세 프로그램개발(성인・노인부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노인복지편람(1985).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보건복지부(1999).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
일본인구문제연구소(1997). 인구의 동향.
한국관광공사(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와 분석과 대책. 서울: 한국관광공사, 90-118.
한겨레신문(2000). 2000년 6월 8일자 보도 내용 참조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9). 노후생활의 지혜.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한국사회복지협회(1995). 사회복지사전- 최신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출판사.
통계청(1996).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2002). 통계연보. 통계청
UN(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장래인구추계"통계청.
UNDP 한국대표부(유엔디피 유엔개발계획), 1988, p.70
松原治郎(1977). 餘暇社會學. 東京: 垣內出版. 3-4.
松田義辛(1981). 現代餘暇の社會學. 東京: 誠文堂. 66-67.
Atchley, R. C.(1982). Adjustment to loss job at retirement. In Schaie and Geiwitz(Eds.),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oston : Brown and company.
Beard, J. G. & Raghed,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an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Bromwick, M. and Hopueood, A. G.(1983).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Pitman, p. 42.
Brightbill, C. K.(1963). The Challenge of Leisu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4.

Bruno, S.(1980). Social Security and Pension in Transition(New York: The Free Press).

Bull, C. N. & Aucoin, J. B.(1975).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 A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30, 73-76.

Cavan, R. S., Burgess, E. W, Havighurst, R. H., & Goldhammer, H.(1949). *Personal abjustment in old age.* Science Research Associates. Chicago.

Chekola(1975). The concept of Happiness(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74).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35, 4609A.(University Microfilms No, 75-665).

Conle.A. J.(1957). How The Age Disrtibution of a Human Population is Determind. (New York : The Biological Laboratory), p. 84.

Csikszentmihaly,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 Bass.

Dahl, G. J.(1971). Work and Leisure. New York : Christian Century Foundation, 187.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가 : The Free Press, 16-17.

Evans, G. J.(1988). Ageing and disease. in research and the ageing population. Chichester, UK: Wiley.

Folkins, C., & Sime, W.(1981). physical fitness Training and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36, 373-389.

Forbes, W. F., & Hirdes, J. P.(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d disease: Geriatric ideology and myths of sen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1(11), 1267-1271.

George, C. L.(1979).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Montery, CA: Brooks & Cole Publishing Co.

Gold, S. M.(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15-116.

Gordon, C. Gaitz, G. M. & Scott, J.(1976).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cross the Life spa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 R. H. Binstock and E. Shands, N. Y : van Nonstrandco, 314.

Graney, M. J.(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30, 701-106

Grazia, S.(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3-14.

Guba, T. & Lincoln, K. W (1985). Preliminary evidence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n abbreviated prefile of moo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3(2), 93-109

Han, S.(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flow in elderly Korea immigeants. In M. Csikszentmihalyi & I. S. Csikszentmihalyi(Ed.) *Optimal experience: Psychology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pp. 138-1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ndricks & Cutler, K. S.(1990).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6(2), 183-194

Heikkinen, E.(1995). Epidemiologic-ecological models of aging. Canadian Journal on Aging, 14(1), 82-99.

Hoyt, D. R., Kaiser, M. A., Peters, G. R. & Baqbchuk, N.(1980). Life satisfaction and activity theory :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5*, 935-941.

Iso-Ahola, S. E.(1980). The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Iowa : Wim. C. Brown Company Publishers, 164.

Kaplan, J.(1953), A Social Programs for Older People, Menirapolis : The Lund Press, Inc,. p.5

Kaplan, M.(1960). The Uses of Leisure,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

Kelly, J. R. & Steinkamp, M. W.(1987). Later-life satisfaction :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190-200.

Larson, R.(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15.

Mannell, R. C. & Zuzanek, J.(1998). Leisure and non leisure states during daily life for older adults reporting different levels of life satisfaction. Paper presentes at

the NRPA meetings, Indianapolis, Illinois.

Markides, K. S. & Martin, H. Q.(1979).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 86-93.

Maslow, A. H.(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McPherson, B. D.(1991). Patterns of sport participation across tar life cycle.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for Tokyo Branch of the Japan Society of Sociology of Sport. Tokyo.

Medley, M. L.(1980). Life satisfaction across four stages of adult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 193-209.*

Murphy, J. F.(1975). Recreation and Leisure Services. Iowa : William C. Brown, 6-15.

Mills, C. W.(1970). White Colla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15.

Miller, B. & Cafasso, L.(1992).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 Fact or artifact. The Gerontologist, 32(4), 498-507.

Nash, J. B.(1980). Philosophy of Recreation and Leisure, Iowa : Willam Brown, 89.

Neulinger, J.(1981). An Introduction to Leisure. Boston : Allyn and Bacon, 13.

Neugarten, B. L, Havighurst, J. R, & Tobin, S. S.(1979).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315-326.

Nunnr, D. H. & Wilhite, S. R.(1997).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MacGibbon and Knee, 20.

Omedi, M. M. & Wearing, A. J.(1990). Need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in personal project: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62-769.

Paker, S. R.(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 MacGibbon and Knee, 20.

Palmore, E. B.(1968). The effects of aging on activities and attitudes. gerontologist, 8, 259-263.

Preston, E. M.(1987). Factors affecting nursing home residents loneliness,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Ragheb, M. G.(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 138-149.

Ragheb, M. G. & Griffith, C. A.(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 persons. Journal of Liesure Research, 14(2), 295-306.

Rauels, G.(196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 Cambridge Press), p. 169

Riddick, C. C.(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 Leisure Sciences, 7(1), 47-63.

Rodin, J., Timko, C, & Harris, S.(1985). The construct of control :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23-731.

Riley, M.(1987). On the significance of age i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1-14.

Searle, M. S, Mahon, M. J, Iso-Ahola, S. E, Adam Sdrolias, H, & Van Dyck, J.(1995). Enhancing a sens of independ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lderly: A field experri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2),* 107-124.

Shaver, P, & Freedman, J.(1976). Your pursuit of happiness. *Psychology Today, 10,* 26-32.

Sneegas, J. J.(1986).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ddle and later life adults :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48-258.

Szalai, A.(1990). The meaning i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SAGE Studies in International Society 20 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Budapest : Karl Marx University of Economic Science.

Teaff, J. D.(1985). Leisure services with the elderly. St. Louis, MI : Times Mirror/Mosby College Publishing, 46.

Tinsley, H. E. A. & Tinsley, D. J.(1986). A theory of the atitude benefits and cause of leisure experience. *Leisure Science, 8,* 1-45.

Veblen, T.(1953). The Theory of Leisure Class. Chicago : New America Library, 22.

Wallace R. B.& Woolson, R. F.(1992). The epidemiologic study of the elderl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n, T. T.(1992). Well-Being of the Elderly,(Howrth Pass).

Ward, R. A.(1979). The Meaning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to older peaple fourmal of Gelontology, Vo. 34, No.2, pp. 428-430.

Ward, R. A.(1984). Subjective network asse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39, 93-101.

Won, H. J.(1989). The daily leisure of Korea school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 to subjective Well-being and leisure fun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Wylson, A.(1980). Design for Leisure Entertainment. Boston : Butter Worth Inc, 1.

설 문 지

I D				
지 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정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금번 연구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장차 복지사회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노인 어르신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제시된 응답 요령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설문에 응해 주신 어르신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5. 6.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지도교수 김 철 주

연 구 자 성 현 출

Ⅰ.다음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주로 하시고 계신 **여가활동 참가 정도**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경우는 어떠한 지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여가활동 유형은?.**
   ① 스포츠 ② TV 시청 ③ 취미 · 교양
   ④ 행락 · 관광 ⑤ 놀이 · 오락

2. 귀하께 서 위의 여가활동을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4-5번 ③ 1주일에 2-3번
   ④ 1주일에 1번 ⑤ 한 달에 1-2번

3. 귀하께서 위의 **여가활동 1회 참여 시 활동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하루 종일 ② 반나절 정도 ③ 2-3시간 정도
   ④ 1시간 정도 ⑤ 1시간 이하

4.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 오고 계십니까?**
   ① 2년 이상 ② 1년 - 2년 ③ 6개월 - 12개월
   ④ 3개월 - 6개월 ⑤ 3개월 미만

5. 귀하께서는 **누구와 주로 여가활동을 즐기십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 ④ 복지시설 교사 및 보조자 ⑤ 모임

6. 귀하께서는 **여가활동 1회 비용으로 얼마나 소비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만원이하 ③ 1-3만원 미만
   ④ 3-5만원 미만 ⑤ 5-10만원 미만 ⑥ 10만원이상

7. 귀하께서 **여가활동에 참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을 위해서 ② 정서, 심리적 만족과 안정 ③ 친교 ④ 여가자체가 즐거워서

8.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이 바빠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몸이 약해서 ④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⑤ 게을러서 ⑥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⑦ 주변사람들이 못하게 해서 ⑧ 관심이 없어서

II. 다음의 문항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시면서 귀하가 느끼는 만족 정도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본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귀하의 솔직한 응답을 번호에 √ 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잘모르겠다	2 그렇지않다	1 전혀 그렇지않다
1.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5	4	3	2	1
2. 여가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 준다.	5	4	3	2	1
3.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한다.	5	4	3	2	1
4. 나는 여가 활동을 통해 나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해 본다.	5	4	3	2	1
5.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5	4	3	2	1
6.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5	4	3	2	1
7.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5	4	3	2	1
8.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5	4	3	2	1
9. 나는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한다.	5	4	3	2	1
10.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5	4	3	2	1
11.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정서 발달에 기여한다.	5	4	3	2	1
12.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5	4	3	2	1
13.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5	4	3	2	1
14. 내가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건강을 지켜준다.	5	4	3	2	1
15.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5	4	3	2	1
16.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5	4	3	2	1
17.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면 정신통일이 잘 된다.	5	4	3	2	1
18.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그 활동자체에 완전히 몰두하게 된다.	5	4	3	2	1
19.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5	4	3	2	1

Ⅲ.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본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귀하의 솔직한 응답을 번호에 √ 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3 그렇다	2 잘모르겠다	1 그렇지 않다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3	2	1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3	2	1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3	2	1
4. 나는 내 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 편이다.	3	2	1
5. 내가 살아온 길은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3	2	1
6.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3	2	1
7. 요즈음 나는 살맛이 난다.	3	2	1
8. 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게 느껴진다.	3	2	1
9. 나는 요즈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3	2	1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3	2	1
11. 나는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3	2	1
12. 나는 요즈음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3	2	1
13. 나는 요즈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3	2	1
14. 나는 요즈음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3	2	1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3	2	1
16.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3	2	1
17. 나는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3	2	1
18. 나는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3	2	1
1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3	2	1
20. 나는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3	2	1

Ⅳ.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물음입니다.
해당번호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65-69세 ② 70-74세 ③ 75-79세 ④ 80세 이상

3. 귀하의 종교는?
   ① 천주교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없음

4. 귀하의 한달 용돈은?
   ① 5만원 이하 ② 6-10만원 미만 ③ 11-14만원 미만 ④ 15-20만원 미만 ⑤ 21만원 이상

5.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무학 ②한학(서당)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 이상

6. 귀하의 배우자는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한 편이다. ② 그저 그렇다. ③ 허약한 편이다.